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f Improvements to Enhance the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이상민 Lee, Sangmin

손은신 Son, Eunshin

송윤정 Song, Yunjeong

(a u r i

정책연구보고서 2022-1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f Improvements to Enhance the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지은이 이상민, 손은신, 송윤정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2년 06월 15일, 발행: 2022년 06월 2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9-11-5659-369-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Ⅰ 연구책임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 Ⅰ 연구진 손은신 부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 Ⅰ 연구보조원 김수인
 - Ⅰ 외부연구진 엠브레인 퍼블릭
-

- Ⅰ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부원장
 조상규 기획조정실장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

- Ⅰ 연구자문위원 길지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간사
 김윤희 춘천시 복지지원과 주무관
 김호기 백범김구기념관 관리부장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박은성 (前)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서기관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양영조 (前)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옥주연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이성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사무관
 이희정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과장
 정기석 대구지방보훈청 현충교육팀 주무관
 조미혜 세종대학교 교수
 주남주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홍민희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황민호 숭실대학교 교수
 황승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주무관

이 연구는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의한 현충시설, 즉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며, 그 중 국내 시설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현충시설 현황과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역할과 가치 검토,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현충시설은 2,259개소(‘21년 기준, 해외현충시설 1,386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시설과 국가수호 관련시설로 구분되며, 시설유형은 비석·탑·조형물·상징물·장소·기념관·사당·생가·부속건물 및 관련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900부) 대상으로 실시한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이 현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충시설에 대해 단순인지 비율이 높아 향후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과 추모의 상징공간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슬프고 어두운 이미지와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 현충시설의 이용프로그램

다양화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3장에서는 주제별 국내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앙부처는 근거법에 따라 운영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학예연구사 등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지자체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소수의 담당자가 보훈업무와 함께 현충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주변 청소나 개보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단체도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유했던 시설을 국가보훈처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와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현충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 및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수사례들은 역사적 사실의 보존과 전승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역 정체성 형성과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기념 및 추모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국가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이다.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인물에 대한 기념 및 추모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문화재와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현충시설이 지닌 보훈 가치 선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정립,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접근성 향상, 그리고 현충시설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충시설은 국가의 주요한 상징정책인 보훈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 형성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1)국가 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서 현충시설의 위상 정립, 2)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으로 현충시설 활용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현충시설의 명칭과 대상 개선, 시설 특성을 고려한 현충시설 유형 재검토 및 지정·관리 방안 마련, 현충시설의 건립, 소유, 관리 등 관련 주제 역할 정립 및 주제별 역량 강화, 현충시설 관련 전담조직 신설, 우수 현충시설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현충시설, 보훈정책, 보훈선양, 보훈문화, 추모, 기념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내 현충시설의 현황과 보훈정책에서의 가치	9
1. 국내 현충시설의 기본현황	9
2.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본 현충시설	23
3.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32
제3장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39
1.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정책 현황	39
2. 주체별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	47
3. 소결	62
제4장 현충시설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65
1. 조사 개요	65
2.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	68
3.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80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87
제5장 결론	93
1.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93
2. 연구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97
참고문헌	101
SUMMARY	103

차례 CONTENTS

부록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 107

부록2. 국민인식조사 결과 ————— 115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현황	6
[표 2-1] 현충시설의 유형	10
[표 2-2] 시도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현황	11
[표 2-3] 국내 현충시설 소유주체 현황(2022.02.01.기준)	12
[표 2-4] 국내 현충시설 유형별 현황(2022.02.01.기준)	12
[표 2-5] 현충시설 관련 법령 체계	14
[표 2-6] 현충시설 관련 신규 법 제정 진행 현황	15
[표 2-7] 현충시설 지정 및 해제 현황(2022. 2. 1. 기준)	17
[표 2-8]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22년 기준)	20
[표 2-9] 설문 조사 항목 및 내용	23
[표 2-10]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 주요 변화	35
[표 3-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주요 업무	40
[표 3-2] 현충시설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보훈처 사업	42
[표 3-3]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 관할구역 현황	44
[표 3-4]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대상	47
[표 3-5] 독립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48
[표 3-6] 독립기념관 주요 사업	50
[표 3-7] 전쟁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51
[표 3-8] 전쟁기념관 주요 사업(2022년)	53
[표 3-9] 춘천시 관리 현충시설 목록	55
[표 3-10]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 현충시설 목록	57
[표 3-11] 백범김구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59
[표 3-12]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주요 업무	61
[표 4-1] 사례조사 대상 목록	66
[표 4-2] 독립기념관 시설 개요	68
[표 4-3] 서대문 독립공원 시설 개요	70
[표 4-4] 서대문 독립공원 내 현충시설 현황	71
[표 4-5] 순천시 현충정원 시설 개요	74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6]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시설 개요	76
[표 4-7]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시설 개요	78
[표 4-8]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개요	80
[표 4-9] 9.11 메모리얼 시설 개요	83
[표 4-10]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시설 개요	85
[표 4-11] 사례별 주요 특성	87
[표 부록2-1] 응답자 특성	115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도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추이	1
[그림 1-2] 유형별·시설별·주제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현황	2
[그림 1-3]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정도 및 관심정도	3
[그림 1-4] 연구추진절차	5
[그림 2-1] 법적 개념의 현충시설	10
[그림 2-2] 현충시설 형태별 예시	13
[그림 2-3] 현충시설 지정 절차	16
[그림 2-4] 현충시설 지원 절차	19
[그림 2-5] 현충시설 인지도 및 관심도	24
[그림 2-6] 연령별 현충시설 관심도	25
[그림 2-7] 현충시설 중요성에 대한 인식	25
[그림 2-8]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26
[그림 2-9] 현충시설의 기능 및 역할	27
[그림 2-10] 현충시설 방문경험 및 방문목적	28
[그림 2-11]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수요	29
[그림 2-12]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참여 의사	29
[그림 2-13] 국가보훈의 상징이념 체계도	32
[그림 2-14] 현충시설 가치와 기능의 확장	37
[그림 2-15] 현충시설의 가치와 기능	37
[그림 3-1] 현충시설 안내판 디자인 및 설계도 A안	41
[그림 3-2] 2018년 제8회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행사(좌), 중국 항일기념관 체험행사(우)	43
[그림 3-3] 이동전시모듈 제작 결과물(좌), 2021년 실무진 워크숍(우)	43
[그림 3-4] 대구지방보훈청 관할구역	46
[그림 3-5] 독립기념관 조직도	49
[그림 3-6] 독립기념관 전경	51
[그림 3-7] 전쟁기념관 조직도	53
[그림 3-8] 전쟁기념관 전경	54
[그림 3-9] 춘천시 관리 현충시설 사례(좌: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 우:의암 류인석선생 동상)	5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10] 인천광역시 중구 권리 현충시설 사례(좌: 맥아더 장군 동상, 우:3·1독립만세 기념비) -	58
[그림 3-11]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조직도	60
[그림 3-12] 백범김구기념관 전경	61
[그림 4-1] 독립기념관 주요 전경	69
[그림 4-2] 서대문 독립공원 주요 전경	73
[그림 4-3] 순천시 현충정원 주요 전경	75
[그림 4-4]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주요 전경	77
[그림 4-5]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주요 전경	79
[그림 4-6] 망우역사문화공원 애국지사의 길	82
[그림 4-7] 망우역사문화공원 주요 전경	82
[그림 4-8] 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주요 전경	84
[그림 4-9]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주요 모습	86
[그림 5-1] 광의적 개념의 현충시설	95
[그림 부록2-1] 평소 현충시설 관심도	117
[그림 부록2-2] 현충시설 인지도	117
[그림 부록2-3] 현충시설 중요성	118
[그림 부록2-4] 현충시설에 대한 인식	119
[그림 부록2-5] 현충시설 기능에 대한 인식	119
[그림 부록2-6] 가장 중요한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중요도)	120
[그림 부록2-7] 현충시설 방문 횟수	121
[그림 부록2-8] 현충시설 방문 목적	122
[그림 부록2-9] 현충시설에 대한 인상	123
[그림 부록2-10] 현충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124
[그림 부록2-11]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참여 의향	124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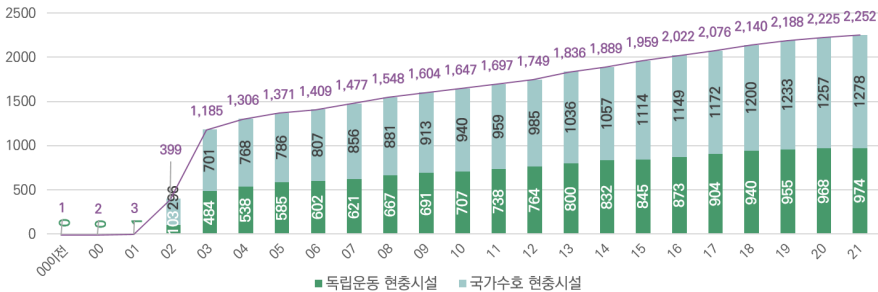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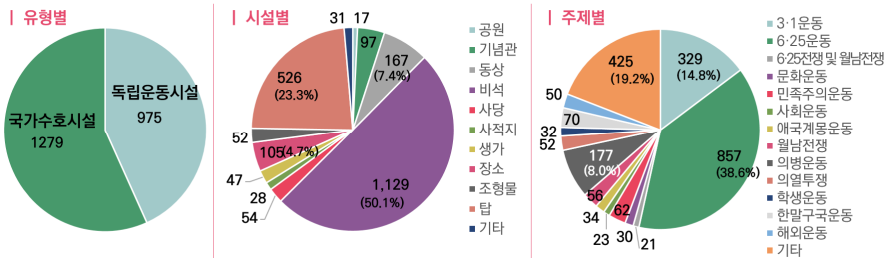
-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2002년 1월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및 건립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국내 현충시설은 총 2,259개소¹⁾ 21년 기준, 해외 현충시설 1,386개소²⁾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1] 연도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추이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오픈 API 자료
(<http://mfis.mpva.go.kr/community/openApiView.do>)(검색일:2022.02.03.)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법적으로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 현충시설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설의 유형도 공원이나 사적지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 기념관이나 사당과 같은 건축물, 그리고 비석, 조형물, 탑 등과 개별시설물 등으로 다양함



[그림 1-2] 유형별·시설별·주제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현황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현충시설 현황

(<http://mfis.mpva.go.kr/serviceMap/serviceMapMain.do#none>)(검색일:2022.02.0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시설과 국가수호 관련시설로 구분되며, 유형 측면에서는 비석·탑·조형물·상징물·장소·기념관·전시관·사당·생가·부속건물 및 관련 시설 등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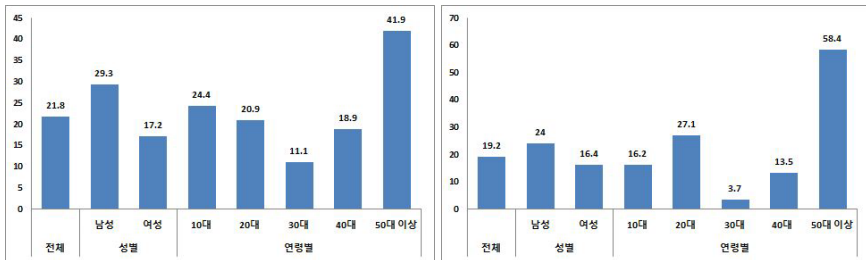
□ 현충시설은 보존정책 실현 및 보존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

-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에서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인 ‘현충시설을 국민참여 중심으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추진, 민관협력, 시설활성화, 홍보강화, ICT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함
-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주요 내용인 ‘보훈문화 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현충시설은 보훈문화, 즉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물리적 기반임

- 세부과제로 제안된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은 현충시설이라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상을 통해 실현가능함

□ 보훈선양이라는 현충시설의 본래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 인식 부족

- 일부 시설은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 사적지에 위치하여 장소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나 접근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일반인 대상(200명)으로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현충시설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1.8% 정도였고, 관심정도는 19.2%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¹⁾



[그림 1-3]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정도('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 응답비율) 및 관심정도('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와 '관심이 매우 많다' 응답비율)

출처 : 형시영 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pp.95-96.

- 따라서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현충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현충시설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국내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및 활용 현황 진단, 가치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
-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1) 형시영 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pp.95-96.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의한 현충시설 중 국내 시설

☐ 내용적 범위

- 국내 현충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과 실태 파악
- 국내외 관련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2)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분석

- 현충시설 지정·운영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 현충시설의 개념·범위, 지정·관리, 활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현충시설 주체별 운영관리 현황 조사
- 국내외 현충시설 관련 운영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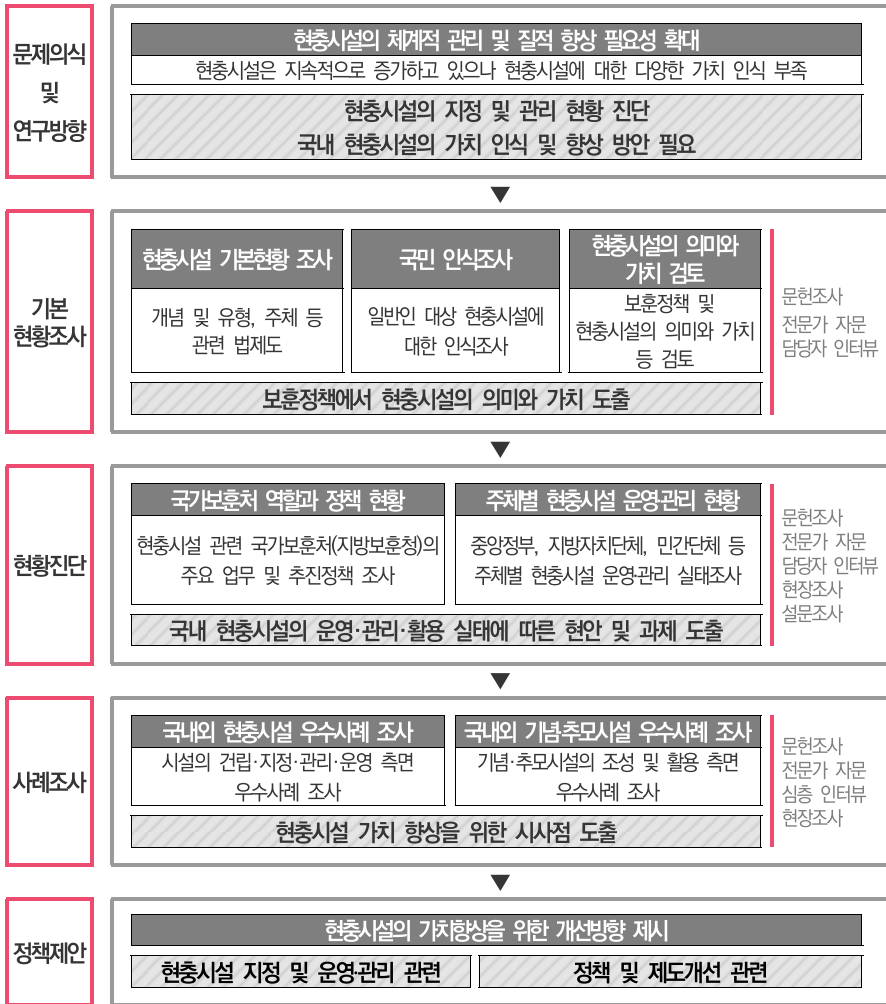
☐ 운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현충시설 현장답사

- 국내 주요 현충시설 현장답사 및 관련 담당자 인터뷰

☐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국민인식조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 현충시설의 가치 발굴 및 정책·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인터뷰

3) 연구추진절차



[그림 1-4] 연구추진절차

출처 :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 2010년부터 현충시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 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
 - 이영자외(2010)은 현충시설의 성격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절차를 구체화 및 규범화하여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형시영외(2014)도 합리적인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험교육의 장으로서 현충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활용보다는 관리 측면에 두고 있음
 - 류현숙외(2015)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현충시설 명칭 변경과 합리적인 현충시설 지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관리적 측면보다는 현충시설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개념과 범위, 현충시설 지정기준을 검토함
 - 김정현외(2016)는 현충시설 관련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충시설 관련 법률제정안을 제시함
 - 김창규외(2019)는 민주화운동시설을 포함하여 현충시설의 지정범위를 재확립하고 지정유형을 분류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정유형별 관리원칙 및 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대부분의 연구가 현충시설이라는 단위시설에 초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진행됨

[표 1-1]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제목 : 이영자외(2010),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목적 : 현충시설 지정·건립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및 현충시설 지정절차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관계자 실증조사 및 전문가 자문	-국내·외 현충시설 현황 분석 -현충시설 지정 기준 대안 모색 -현충시설 지정·관리 개선방향 도출 -현충시설 등급제 도입방안, 지정·등록제 도입방안 및 통합관리방안 제언
	-제목: 형시영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목적: 합리적인 현충시설 통합	-문헌조사 및 관련제도 검토 -국내 현충시설 현장조사 -설문조사	-현충시설 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관리체계 문제점 도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현충시설 활용 방안 모색	-전문가 자문	-해외 현충시설 관리사례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현충시설 인 식 및 문제점 도출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도출
-제목 : 류현숙외(2015), 현충시 설 용어개선 및 범위 등에 관한 연구 -목적 : 현충시설의 개념을 명료 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충시설 지정기준 방안 마련	-문헌조사 및 제도 현황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현행 현 충시설 및 기념시설 명칭 및 대 상 범위의 문제점 도출 -국내외 현충시설 현황조사 및 지정기준 검토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을 포함 한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제목: 김정현외(2016), ‘현충시 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목적 : 현충시설 관련 제도 검토 및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현충시설 관련 법률제정안 제시	-문헌조사 -법령조사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현충시설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 -현충시설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 논의 -현충시설법 제정안 마련 및 입 법이유 제안
-제목 : 김창규외(2019), 현충시 설 지정범위 및 효과적 관리모 델 개발 정책연구 -목적 : 현충시설의 지정범위 재 확립 및 효과적인 관리모델 개 발 연구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현충시설 현황조사 및 관 련정책조사 -관련 법제 검토 -문화재 제도 검토	-현충시설 분류 유형화 개발 -현충시설 유형별 차별화 및 관 리절차 개발 -현충시설 유형별 관리·활용방 안 마련 -현충시설 유형별 맞춤형 관리 제도 개발
-제목 : 형시영외(2011)나라사 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목적 : 국가보훈정책의 상징기능 을 강화 및 통합관리 방안 모색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현장 및 설문조사 -관련자료 내용분석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이론 고찰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현황과 실태분석 -국가보훈 상징기능의 관리방 안 마련
-제목 : 박중훈외(2012), 나라사 랑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선양정 책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 :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상 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모색	-문헌조사 -해외사례조사 -실태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인 워크숍 개최	-보훈 및 보훈선양정책 관련 이 론검토 -해외 보훈선양정책 사례 조사 -국내 선양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보훈선양 관련 쟁점 및 개선방 안 도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본 연 구	-제목 :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관련 법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 분석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법제도 분석
	-목적 : 현충시설의 가치향상 측면에서 현충시설 지정 및 운영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마련	-주요 현충시설 현장답사 -현충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자문	-주요 현충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분석 -현충시설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제시

출처 : 연구진 작성

- 앞의 연구들처럼 현충시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와 함께 국가의 보존 정책 또는 상징정책으로서 현충시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 형시영외(2011)는 국가 보존정책의 상징기능 차원에서 보존선양시설로서 현충시설을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징의식(행사), 상징시설 등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상징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박중훈외(2012)는 형시영외(2011)와 유사하게 보존정책의 상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보존선양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 가운데 현충시설은 선양정책 중 기념사업의 일부로 보고 있음
- (본 연구의 차별성) 국가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 기존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국내 현충시설의 현황과 보훈정책에서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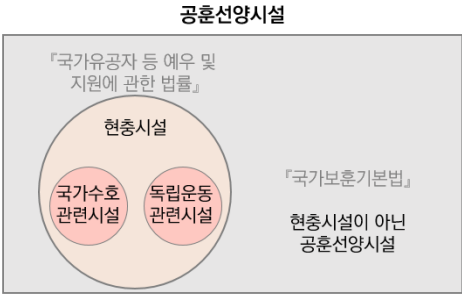
1. 국내 현충시설의 기본현황
 2.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본 현충시설
 3.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

1. 국내 현충시설의 기본현황

1) 현충시설의 개념

□ 현충시설의 법적 개념과 범위

- 가장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서 **공훈선양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및 국가수호·참전유공자를 위한 시설을 **현충시설**로 정의함. 법적으로 현충시설은 공훈선양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임
 -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상위법으로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공훈선양시설(법 제23조 제26조)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및 국가수호·참전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서 현충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법74조의2~4)



[그림 2-1] 법적 개념의 현충시설

출처 : 류현숙 외(2016),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 및 입법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8(2), p.15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현충시설의 유형과 현황

□ 현충시설의 주제별 유형

-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구분
 - (독립운동 관련 시설) 대표적으로 독립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관순기념관 등이 있음
 - (국가수호관련 시설) 대표적으로 전쟁기념관, 유엔한국전참전 기념탑, 주요 격전지의 기념비 등이 있음

[표 2-1] 현충시설의 유형

독립운동 관련 시설	국가수호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 추모비 · 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 전공비 · 추모비 · 현충탑 · 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 상징물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 · 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 · 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 · 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 전시관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 · 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 · 생가(生家) 및 부속 건물	바.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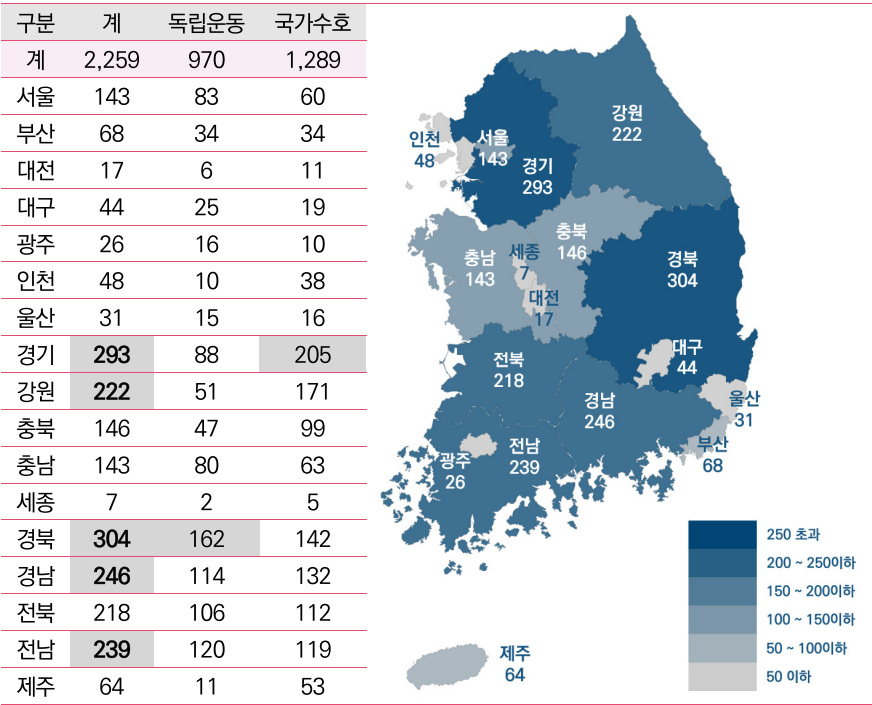
출처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 국내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970개소, 국가수호관련 시설은 1,289개소로, 국가수호관련 시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지역별 현충시설 지정현황

-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현황은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순으로 많음
 - 유형별로는 경상북도에 독립운동관련 시설, 경기도에 국가수호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표 2-2] 시도별 국내 현충시설 지정 현황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지역별 시설 현황
 (http://mfis.mpva.go.kr/intro/introView.do)(검색일:2022.02.03.)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소유주체별 현황

- 현충시설의 소유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문중 등 다양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념사업회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충시설의 소유주체는 시설의 관리의무를 가지나 실제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아 소유주체와 실제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표 2-3] 국내 현충시설 소유주체 현황(2022.02.0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앙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기념 사업회	문중	마을 자치 단체	개인	기타
		국방부	경찰	기타		국가	지방	국· 공립	사립	국· 공립	사립					
계	2,259	126	70	17	1,174	4	13	81	38	4	5	367	128	34	79	119
독립 운동	970	3	3	10	487	-	6	30	20	3	3	116	126	7	71	85
국가 수호	1,289	123	67	7	687	4	7	51	18	1	2	251	2	27	8	34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내부자료

□ 유형별 현황

- 시설 유형은 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4] 국내 현충시설 유형별 현황(2022.02.0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등
계	2,259	1,139	525	165	51	98	54	47	18	162
독립운동	970	468	101	96	11	72	45	47	5	125
국가수호	1,289	671	424	69	40	26	9	-	13	37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내부자료

- 국내 현충시설은 비석 및 탑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생가 및 공원은 전국적으로 50개소 미만 분포하고 있음
- 비석, 탑, 조형물, 동상 등과 같은 개별시설물 형태의 현충시설은 실제 유형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3)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

□ 현행 법 체계

- 현충시설 관련 현행법의 내용은, 크게 현충시설심의위원회,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 현충시설의 관리,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해당내용들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충시설 관리지침에서 다루고 있음
 - 하지만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근거조항 없어 현충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률안 제정을 위해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²⁾ 현재 신규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기념관(안중근의사 기념관)



공원(박준승선생 추모공원)



사적지(손병희 집 터)



생가(김창숙선생 생가)



동상(나석주의사 동상)



탑(갑종장교 호국탑)



조형물(경찰헌)



사당(독립관)



비석(강원형 애국지사 기념비)



장소(경성부민관 폭탄의거지)



기타(기지리 6.25 투진지(병커))

[그림 2-3] 현충시설 형태별 예시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http://mfis.mppa.go.kr/memorial/movementList.do>)(검색일: 2022.03.11.)

[표 2-5] 현충시설 관련 법령 체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74조의2 (현충시설의 지정)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제5조(지정요청 및 지 정의 서식)	제7조(현충시설의 지정 등) 제8조(관계 전문가)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관리)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제9조(명예관리자)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2조(관리번호) 제3조(현충시설 관리 대장의 작성·관리)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제74조의4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제11조(사업의 주체)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제13조(개·보수대상 시설 선정) 제14조(예산요구) 제15조(예산의 확정 통지) 제16조(사업비 집행) 제17조(정산) 제18조(지원실적보고)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계획) 제7조(실태조사 공무 원의 증표)	제19조(현충시설 실태조사) 제20조(현충시설의 관리·활용계획) 제21조(자료관리자 지정 등) 제22조(현충시설의 활용)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23조(사업의 주체) 제24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제26조(사업비 집행) 제27조(사업의 변경) 제28조(정산) 제29조(재검토기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구성)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결) 제6조(수당 등)
기타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5113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399호),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3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류현숙외(2014), 「현충시설 용어개선 및 범위 등에 관한 연구」, 김정현외(2016), 「「현충시
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등이 있음

□ 신규 법 제정 진행 현황

- 2020년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2020.08.12)과 정부안인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2020.12.23.)이 발의됨
 - 최근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인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별도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함
 - 또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4·19혁명 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 요구가 대두됨
- 두 법안은 세부내용은 유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명칭 차이만 있음
 - '공훈선양시설'은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2항 및 제26조)에 따른 명칭이며, 국가보훈처는 보다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자 '보훈기념시설'로 발의함
- 향후 신규 법 제정 시, 민주화운동시설까지 현충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훈기념시설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6] 현충시설 관련 신규 법 제정 진행 현황

구분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출 연월일	2020.08.12	2020.12.23
제출자	박완주 외	정부(국가보훈처)
제안 이유	현충시설을 포함하여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	종전의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개편하고 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주요 내용	가. 법의 목적	가. 보훈기념시설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

구분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나. 용어의 정의	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다. 기본계획의 수립	나.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라. 공훈선양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마.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라.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
	바.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마.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사. 국외 공훈선양시설의 보존·관리	
	아. 비용의 지원	
	자. 벌칙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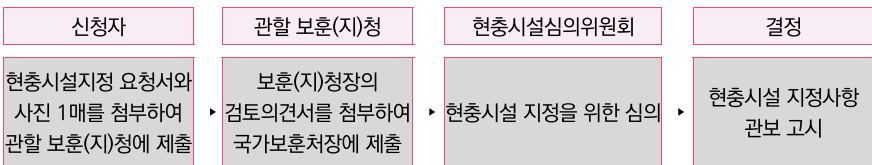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2897/detailRP>)(검색일 : 2022.03.12),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280777>)(검색일 : 2022.03.12.)

4)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체계

□ 현충시설 지정 절차

- 신청자가 해당지청에 현충시설 지정 신청 → 본부 이관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지정 결정 → 공고
 - 신청자가 보훈(지)청장(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현충시설지정요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보훈(지)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함(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 소속 하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
 - 지청에서 현충시설 지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함



[그림 2-4] 현충시설 지정 절차

출처 : 형시영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p.22.

- 현충시설 지정 및 해제현황(2022년 2월 1일 기준)
 - 최근 5년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시설 중 평균 76%정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매년 해제되는 현충시설도 소수 발생하고 있음

[표 2-7] 현충시설 지정 및 해제 현황(2022. 2. 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지정	요청	71	89	65	55	64	344
	승인	56	64	51	43	47	261
해제		1	9	2	9	6	27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내부자료

- 현충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요청 요건
 - 「현충시설 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기준은, 1)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 활용실태 (또는 향후 활용가능성)이며, 이외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과 해당 기관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심의하고 있음(현충시설 지정(해제) 여부 검토의견서)
 - 현재의 지정 검토는 현충시설로서의 의미와 위상 등과 현재 상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유형이나 규모, 시설 자체의 건축적·예술적 특성, 입지의 적절성, 시설의 접근성, 인근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등 공훈선양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갖추어야 기본적인 요건과 시설의 활용 측면에 대한 검토가 지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건립주체 및 관리주체의 역량과 여건, 향후 관리계획 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검토 역시 지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음

※ 현충시설 지정(해제) 여부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현충시설 지정(해제) 여부 검토의견서

시설명		소재지	
검 토 내 역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 활용실태 (또는 향후 활용가능성)			
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			
해당 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현충시설의 지정(해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훈(지)청장 ○○○ (서명)	
종합판단 (지정 □여, □부)	

출처 :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 1353호), [별지 제4]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

-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지정요청서 서식에 따르면, 시설 사진1매와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자료만 첨부하여 해당 시설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해당시설의 실질적인 형태나 접근성, 활용가능성, 심미성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별지 제2호)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뒤쪽의 요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심의에 필요한 기간 제외)
------	-----	------	--------------------

요청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현충 시설	명칭	건립 연월일		
	소재지			
	구분	종류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건물	[] 장소	[] 조형물
	[] 국가수호 관련 시설	[] 탑	[] 비석	[] 동상
		[] 생가	[] 기념관	[] 기타
	소유자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관리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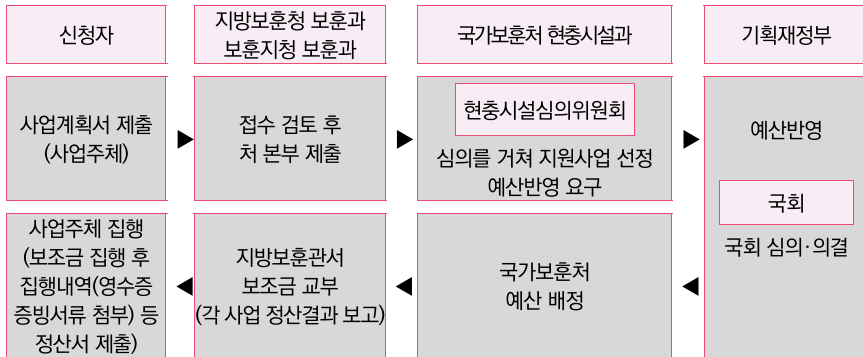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시설의 사진 1장	2.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출처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 1399호), [별지 제2]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현충시설 지원 절차(건립 지원/개·보수 지원)

- 사업주체는 지청에 현충시설 사업계획서 신청 → 본부 이관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지원사업 결정 → 국회 예산 반영 → 본부 예산 배정 → 지청 보조금 교부 → 사업주체 집행
 - 신청자가 보훈(지)청장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검토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 보고(매년 2월 말까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국회 심의를 받음
 - 국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될 경우, 보훈선양국장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함
 -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 외의 시설은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함



[그림 2-5] 현충시설 지원 절차

출처 :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 1353호),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 현충시설 건립 지원 검토 기준
 - 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 관련해서는, 1)부지확보, 2)국고지원 대상 여부, 3)사업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4)사업 실현의 가능성, 5)접근성 및 활용가능성, 6)인근 유사시설, 7)건립이후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

사업명			사업 주체		
장소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 원 (국비, 지방비, 기타)

검토 내역	
부지확보 (확보계획)에 대한 의견	
국고 지원 대상 여부 (법 적용 대상 여부)	
사업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실행 가능성	
접근성 및 활용 가능성	
인근 유사시설	
건립 이후 관리 및 활용방안	
종합 의견	

위와 같이 현충시설 건립 국고지원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보훈(지)청장 ○○○ (서명)

출처 :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 1353호), [별지 제4]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위원

 -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지원, 개보수 지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장 및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됨
 - 독립운동, 국가수호, 건축, 조형물, 광광, 교육, 토목 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분야 전문가가 다수임
 - 시설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위원 풀 구성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2-8]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위원장	내부위원	독립운동	국가수호	건축	조형물	관광	교육	토목
인원	1	1	3	3	1	1	1	1	1
비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내부자료

5)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법적으로 정의하는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 보훈기념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개념 및 범주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공훈선양시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및 국가수호·참전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신규 발의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보훈기념시설**은 기존의 공훈선양시설을 보다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며, 동시에 민주화운동시설까지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현충시설의 건립·소유·관리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문중 등 다양하게 파악되며,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관리주체가 바뀌는 등 개별 현충시설마다 관여하고 있는 주체가 다양하여 실제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움
- 현충시설의 유형은 법적으로 주제에 따른 구분과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를 위한 검토 또는 건립지원 및 개·보수 지원 검토 시 현충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주제 별 구분 : 독립운동 관련 시설, 국가수호관련 시설
 - 형태 별 구분 : 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 비석, 탑, 조형물, 동상 등과 같은 개별시설물 형태의 현충시설은 실제 유형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유형 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유형 별 지정을 위한 검토 사항 또는 유형 별 관리 방식에 대한 매뉴얼 등 현충시설의 질적 검토를 위한 유형별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5년간 신청시설 중 평균 76%정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극히 소수의 현충시설이 해제됨에 따라(2021년 기준, 64개 지정 요청, 47개 지정, 6개 해제), 매년 현충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2021년 기준 2,259개소)

- 현충시설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질적 평가 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이 부재함
- 한편,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 검토는 현충시설로서의 의미와 위상 등의 내용적 검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나 시설의 활용 측면 및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시설유형이나 규모, 시설 자체의 건축적·예술적 특성, 입지의 적절성, 시설의 접근성, 인근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건립주체 및 관리주체의 역량과 여건,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지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독립운동, 국가수호, 건축, 조형물, 관광, 교육, 토목 분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분야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2.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본 현충시설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전반적인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 현충시설의 방문경험과 설립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현충시설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현충시설 관련 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표본 수 900부(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년 4월 12일 ~ 18일

□ 조사 항목

[표 2-9] 설문 조사 항목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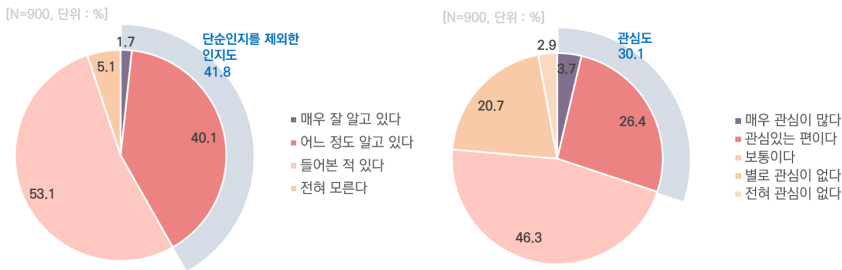
구분	조사내용
응답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지역, 연령, 성별 - 국가유공자 여부 - 거주지역 현충시설 인지 여부 - 직업,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Part1.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현충시설 관심도 - 현충시설 인지도 -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현충시설 중요성
Part 2.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및 주요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 현충시설에 대한 인식 - 현충시설 기능에 대한 인식 - 가장 중요한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Part 3. 현충시설 방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현충시설 방문 횟수 - 현충시설 방문 목적 - 현충시설에 대한 인상 - 현충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참여 의향

출처 : 연구진 작성

2) 조사 결과

□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심도의 연령별 편차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현충시설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평소 현충시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1.8%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1%정도로 나타남. 이는 2014년 수행한 선행연구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2014년 : 인지도 21.8%, 관심도 19.2%)³⁾
 - 한편,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 있다’는 단순 인지가 52.1%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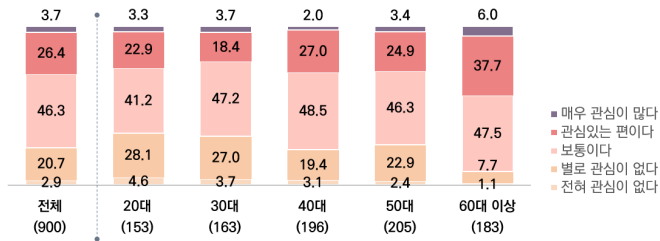


[그림 2-6] 현충시설 인지도 및 관심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특히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는 60대 이상인 경우(43.7%)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대(26.1%), 30대(22.1%)의 관심도와 큰 편차를 보이므로, 연령별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본인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44.2%)에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임

3) 2014년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진행한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는 현충시설 체험박람회에 참여한 200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인지정도는 ‘아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안다’에 응답한 인원을 합쳤을 때 21.8%가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충시설 관심정도는 ‘관심이 많은 편이다’와 ‘관심이 매우 많다’에 응답한 인원을 합쳤을 때 19.2%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형시영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pp.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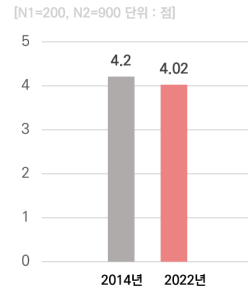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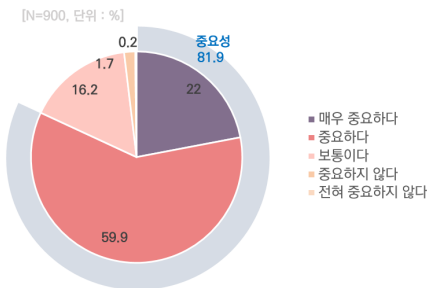


[그림 2-7] 연령별 현충시설 관심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다수의 응답자가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현충시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81.9%(매우 중요하다 22.0% + 중요하다 59.9%)로 응답함
 -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88.6%) 관심이 있는 경우(95.6%) 일수록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현충시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02점을 보이며, 이는 2014년 수행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2014년 : 중요도 4.2점)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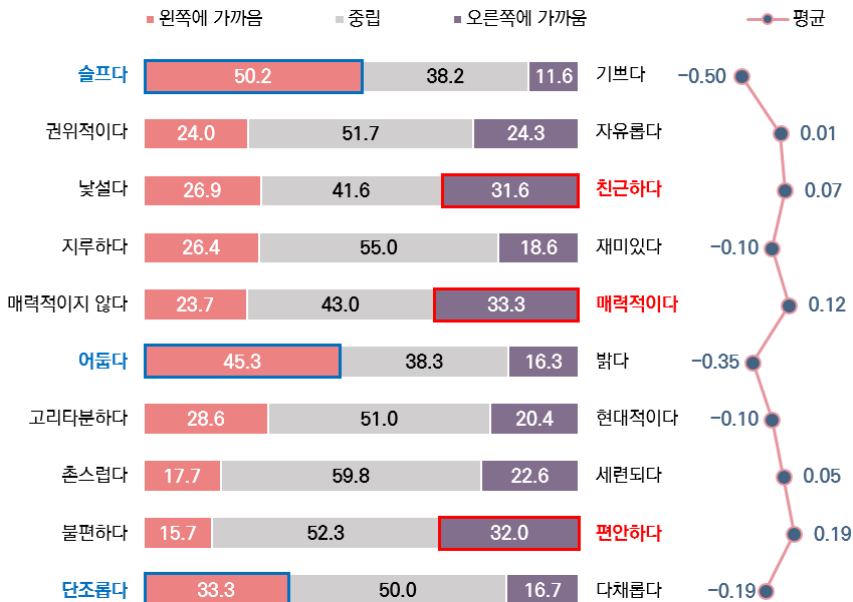
[그림 2-8] 현충시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출처 : 연구진 작성

4) 현충시설이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이 4.2점으로 파악됨; 형시영외(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pp.98-100.

□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비교적 ‘슬프다’, ‘어둡다’, ‘단조롭다’라고 인식되고 있어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슬프다’와 ‘기쁘다’ 중 ‘슬프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50.2%, ‘어둡다’와 ‘밝다’ 중 ‘어둡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45.3%, ‘단조롭다’와 ‘다채롭다’ 중 ‘단조롭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3.3%로 파악됨
- 동시에 현충시설을 ‘매력적이다’, ‘편안하다’, ‘친근하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친근하다’와 ‘낯설다’ 중 ‘친근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1.6%, ‘매력적이다’와 ‘매력적이지 않다’ 중 ‘매력적이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23.7%, ‘편안하다’와 ‘불편하다’ 중 ‘편안하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32.0%로 파악됨
 - 특히 본인 및 가족 중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친근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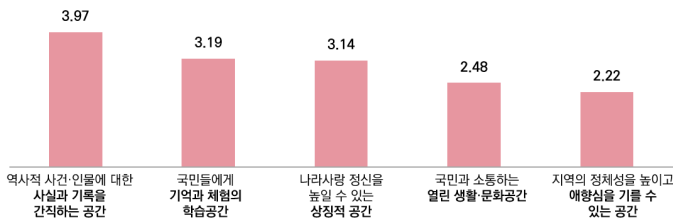
[그림 2-9]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출처 : 연구진 작성

□ 국민이 생각하는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 5가지로 제시된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모두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현충시설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모두 고루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5가지 기능과 역할 : 1)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 2)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 3)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 4)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애郷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 5)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
- 특히 응답자는 그 중에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3.97점),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3.19점), ‘상징적 공간’(3.1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郷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2.22점)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본인 및 가족 중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평소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현충시설이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N=900,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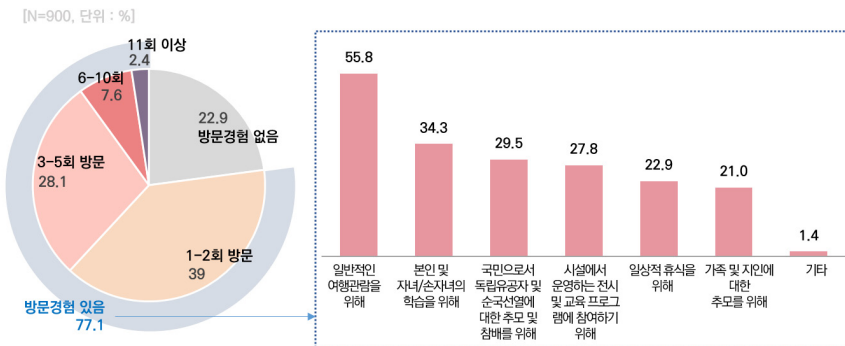
[그림 2-10] 현충시설의 기능 및 역할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방문경험 및 방문목적

-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여행관광을 목적으로 현충시설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충시설의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줌

- 평균적으로 5년에 3.3회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일상적 휴식을 위해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비율이 22.9%로, 일상적 휴식공간으로서 현충시설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줌
- 거주지역 내에 현충시설이 있을 경우 일상적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설의 입지가 현충시설의 활용에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이 중요할 것임
 - 거주지역에 현충시설이 있는 경우에 일상적 휴식을 위해 현충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게(28.5%) 나타남
- 연령별 현충시설의 방문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별 수요를 반영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연령이 낮을수록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응답이 높은 반면, 학부모가 많은 40대는 '본인 및 자녀/손자녀의 학습을 위해'(55.9%)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2-11] 현충시설 방문경험 및 방문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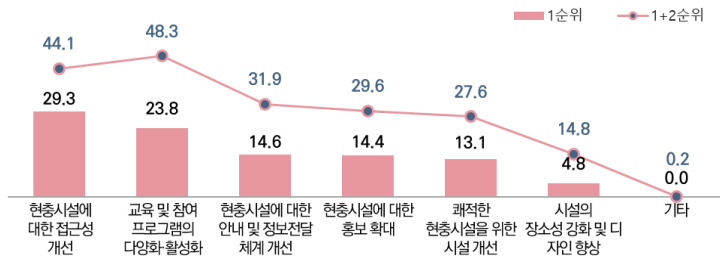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 수요

- 전반적으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접근성 개선' 및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전달 체계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개선 요구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홍보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홍보 확대’(39.9%)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50~60대 중장년층에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N=9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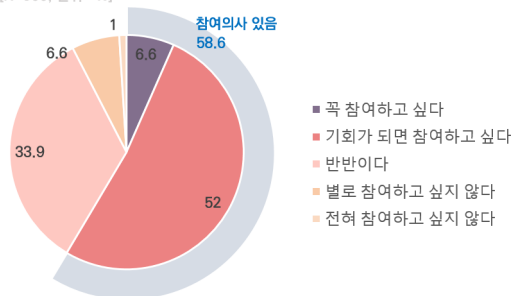
[그림 2-12]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수요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에 참여의사

-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현충시설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민들은 현충시설에서 추진하는 탐방,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58.6%)
 - 특히, 60대 이상(66.1%) 및 30대(65.0%)에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남

[N=900, 단위 : %]



[그림 2-13]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참여 의사

출처 : 연구진 작성

3) 시사점

- 대부분 국민이 현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충시설의 적극적인 운영·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특히, 현충시설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친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 국민의 현충시설 방문목적 조사 결과처럼 현충시설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상적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현충시설 인지도는 단순인지의 비율이 높으므로 현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함
 - 연령별 현충시설의 방문 목적 및 개선 수요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홍보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 현충시설에 대해 1)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 2)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 3)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 4)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애郷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 5)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이 현충시설의 근본적 역할은 아니므로 향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체험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과 추모의 상징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충시설의 상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국민들은 현충시설을 비교적 슬프고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의 전환을 통해 일상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현충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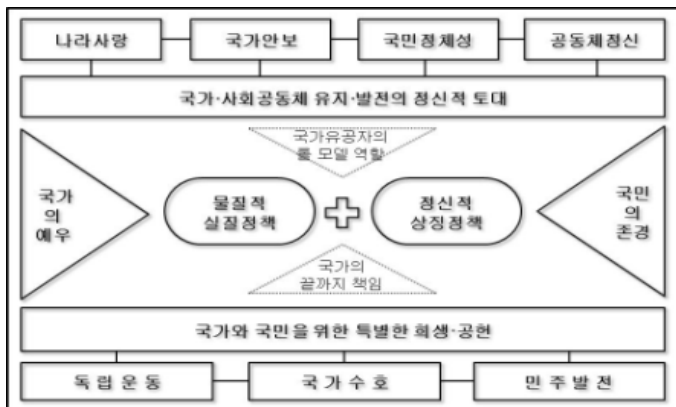
- 이와 함께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세대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세대에 적절하게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 및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3.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1) 보훈정책과 현충시설

□ 국가보훈과 보훈정책

- 국가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위난 발생 시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임⁵⁾
 - 보훈이란 사전적 의미로 ‘공훈에 보답함’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세운 공로와 헌신 및 희생에 대해 보답함을 뜻함⁶⁾
-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훈은 국가의 기능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확립, 국민공동체의 유지·발전, 안보역량의 강화, 국가사회 발전의 추동 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⁷⁾, 국가의 중요한 상징정책임



[그림 2-14] 국가보훈의 상징이념 체계도

출처: 형사영외(2010),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p.149.

5) 형사영외(2011),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p.27.

6) 상계서, p.27.

7) 상계서, p.27.

- 국가보훈의 정책 패러다임은 원호에서 보훈으로 변화됨⁸⁾
 -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로 시작된 원호정책단계는 1985년 보훈으로 정책이념을 설정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예우 및 존경 등 정신적 측면 강조하기 시작함
 - 1990년부터는 보훈정책의 이념에 부합하는 **공훈선양을 확대**하면서, **상징정책이 강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보훈문화가 등장**함⁹⁾
- 현재 보훈정책은 **보상, 예우, 선양, 복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훈선양정책은 1980년대 공훈선양사업으로 시작, 2000년대 현충시설 관리제도 강화,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선양사업의 제도적 틀 마련, 2010년대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추진 순으로 변화하였고¹⁰⁾, 최근에는 일방적, 강제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보훈문화 창달로 접근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14459호) 제22조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보훈선양사업**의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추모/기념사업, 현충시설,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국가유공자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훈선양사업으로는, **정부행사 주관 및 각종 기념행사, 순국선열 유해봉환, 현충시설물 관리,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나라사랑교육** 등이 있음¹¹⁾
- 현재 **현충시설**은 공훈선양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14459호) 제23조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8) 형시영외(2011),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p.118.

9) 상계서, p.118.

10) 윤태영 외(2015),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pp.26-27.

11) 상계서, p.27.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 보훈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 변화

- 1990년대 예우중심의 보훈정책 흐름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서 공훈선양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현충시설에 대한 한 인식이 확산됨
 -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며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비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00년대 보훈문화 개념이 등장하면서 2002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현충시설의 법적 개념이 도입,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2002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등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건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05년 「국가보훈 기본법」 제정에 따라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 함
 - 2006년 이후 전국의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 현충시설의 자료를 관리, 시설 관리의 체계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함
 - 2008년 「현충시설 관리지침」이 마련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표 2-10] 현충시설 관련 법제도 주요 변화

구분	관련법	관련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 등 제정에 관한 법률」 (1985.01)	-
초창기 (1995-2001)	-	광복 5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비 설치 지원 시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97.07)	법 제명 변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분리됨에 따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법 규정 제정 시기 (2002-2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2.03)	현충시설의 개념과 관리자,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제도적으로 명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2.03)	법에서 위임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등)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2.03)	규정에서 위임한 현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관리번호,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정 (2005.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공훈선양 시설 개·보수, 활성화, 지정 및 해제 등으로 정립
제도 정착기 (2006년 이후)		전국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일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현충시설 자료 및 관리 체계가 크게 개선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정 (2008.03)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출처 : 국가보훈처(2011), 「보훈 50년사」, pp.587-589.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의미

- 현충시설은 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며, 동시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수단임
 - 국가보훈정책의 목표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공훈선양시설(현충시설)은 이

러한 국가보훈 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국가가 보훈선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행사 주관 및 각종 기념 행사, 순국선열 유해봉환,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나라사랑교육 등과 같은 보훈선양사업은 현충시설이라는 공간적(물리적) 기반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 **현충시설은 보훈문화 차원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됨**
 - 보훈선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책을 현충시설을 매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 현재 사람 중심의 보훈 정책은, 향후 보훈대상자가 점차 자연 감소됨에 따라 정책 실행수단이 직접적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보훈선양이 점차 중요해지고 보훈문화 형성과 확산이 강조될 것이며, 결국 현충시설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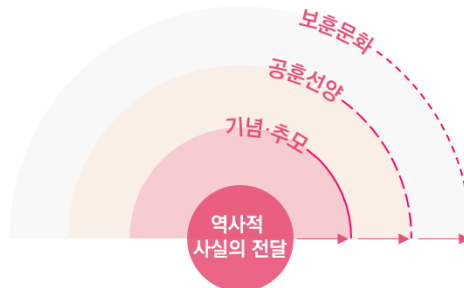
□ 현충시설의 가치와 기능

- **현충시설의 기본요건**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선양시설로서 현충 시설은 먼저 **역사적 사실(인물이나 사건 등)의 전달**을 기본전제로 함
 - 다음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것을 **기념 또는 추모**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훈을 널리 알려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것(선양)이 현충시설의 중요한 요건임
 - 즉, **역사적 사실의 전달, 추모/기념, 선양**이 현충시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자 핵심가치이며, 이것은 시설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예를 들어 기념관, 조형물, 장소 등) 각기 강조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현충시설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유사시설(문화재, 박물관 등)과 현충시설의 차이**
 - 현충시설은 역사적 사실의 전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문화재와 유사하나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의 전달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기념과 추모,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전달이라는 특수목적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와 차이가 있음

- 기념관도 역사적인 사실의 전달과 함께 추모/기념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훈선양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시설인 박물관과 차이가 있음

• 현충시설의 가치와 기능

- **역사적 사실의 전달, 기념/추모, 공훈선양**이라는 3가지 요건을 현충시설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한다면, 궁극적으로 현충시설은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



[그림 2-15] 현충시설 가치와 기능의 확장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은 향후 보훈선양정책, 나아가서 나라사랑, 국가안보, 국가정체성, 공동체정신 등의 국가보훈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현충시설은 역사전승, 기념/추모, 교육/연구, 문화관광자원, 지역정체성 형성, 일상공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²⁾



[그림 2-16] 현충시설의 가치와 기능

출처 : 연구진 작성

12)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제4장 관련 사례조사에서 살펴봄

제3장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1.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정책 현황
 2. 주체별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
 3. 소결
-

1.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정책 현황

□ 조사 개요

- (목적) 국내 현충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의 주요 업무와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부의 현충시설 운영·관리 역할을 파악, 이를 통해 현충시설의 가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 (대상) 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 및 활용 등 관련 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지방보훈청**의 현충시설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역할과 업무를 파악함
- (방법) 관련 자료 조사 및 인터뷰

1)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및 정책

□ 주요 업무 및 역할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는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충시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의 종합적 기획을 담당함
- 국내·외 현충시설의 건립, 실태조사,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국내 현충시설 중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국가보훈처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함

[표 3-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현충시설 관련 제도·정책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현충시설에 관한 법령의 입안, 제·개정 및 연구·발전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 현충시설 조사·관리·활용	국내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정신 고취에 관한 사항
	사적지(史跡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 관리·운영	백범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각종 기념관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독립기념관 지도·감독 및 지원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국외 현충시설 건립·조사·관리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복원·관리 지원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전 참전 관련 해외 시설 활용에 관한 조사·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48>)(검색일:2022.05.18.)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해 1)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 및 안내판 설치 지원, 2)현충시설 관리 국민 참여 지원, 3)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지원, 4)기념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 소유의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 및 안내판 설치 지원
 -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시설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한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신규 및 노후 등으로 설치되는 안내판에 적용하되, 국고보조가 불가한 지자체 시설 등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시설 소유자 등이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디자인 사용을 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의 후 자체 디자인 사용 가능하도록 함



[그림 3-1] 현충시설 안내판 디자인 및 설계도 A안

출처 : 국가보훈처(2020.06),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시설 관리 참여 지원
 - 1학교·1사·1현충시설 결연을 통해 「현충시설 사랑을 위한 공동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참배 및 정화활동을 추진함
 -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거나 관리역량이 미흡한 현충시설에 대해 ‘현충시설지킴이’ 사업을 실시, 시설 인근의 민간단체, 보훈가족, 퇴직 공무원 및 교사 등이 현충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함
 - ‘우리 고장 현충시설 알리미 지원’을 통해 현충시설을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교사·공무원 등을 현충시설 알리미로 선정함
-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지원 사업 추진
 - 일반 국민의 현충시설 인지도를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광명소 및 지역 축제와의 연계 코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 기념관 활성화 사업 추진
 - 기념관의 각 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사·체험 교실 등 프로그램 계획과 기획전시, 문화행사 유치, 홍보캐릭터 개발 등을 지원함
 - 음악회, 연극제, 사생대회, 글짓기 등 특별행사 및 청소년 보훈정신 함양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함

[표 3-2] 현충시설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보훈처 사업

구분	주요 업무
현충시설 실태조사 및 체계적 보존·관리	현충시설 실태조사 실시
	현충시설 개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현충시설 관리
	1학교 1사-1현충시설 결연
	현충시설지킴이 사업 기타 현충시설 관리 우리 고장 현충시설 알리기 지원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한 봉사활동 유도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기념관 등 활성화 사업 관광명소 등과 연계한 현충시설 체험·탐방사업
현충시설 활용 및 홍보	현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현충시설정보서비스 자료관리 철저 및 활용 (내 손안의 보훈기념관) 각 지방보훈관서 소재 기념관과 협업하여 모바일 앱 홍보·활용 등 공동 활성화 추진

출처 : 국가보훈처(2021), 「국가보훈처 2022 보훈업무 시행지침 II」, pp.63~8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기념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간 공동사업을 추진, 독립기념관 및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소규모 기념관 활성화 도모
 - 독립기념관은, 현충시설 교육 협력망 사업을 통해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 간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관계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현충시설 연계교육, 현충시설 관계자 역량 강화 국외 사적지 답사)을 운영하고 있음
 -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콘텐츠 보급을 통한 전국 국가수호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국가수호 현충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영상 콘텐츠 개발·제작 및 보급, 이동전시모듈 제작 및 순회전시, 기관 실무진 역량강화(워크숍, 직무 교육 자료 제작, 학예분야 자료 제공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 및 전쟁기념관은 국내 현충시설의 중심 기관으로서 각 각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독립기념관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 장소 : 독립기념관 내 행사장
- 참여기관 : 국내의 현충시설 40개 기관
- 대상 : 초, 중, 고교생 및 가족 관람객
- 참가비 : 나라사랑하는 만큼(관람객 자율, 추후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기부물품 전달)
- 내용
 -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관련 전시
 - 각 기관에서 다루는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인물 및 사건 학습
 - 기념관별 나라사랑 체험과 추모활동



[그림 3-2] 2018년 제8회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행사(좌), 중국 항일기념관 체험행사(우)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s://i815.or.kr/2018/news/news.do?mode=V&no=990542&skey=title&sval=%EB%B0%95%EB%9E%8C%ED%9A%8C&pageIndex=&key_bbs_cd=)(검색일: 2022.05.20.)

※ 전쟁기념관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 사업명 : 6·25전쟁 콘텐츠를 보급을 통한 전국 국가수호 현충시설 활성화
- 장소 : 전국 국가수호 현충시설 등 전쟁군사박물관 협력망 기관(51개 기관)
- 사업목적
 - 전국 국가수호 현충시설 등 전쟁군사박물관 활성화
 - 6·25전쟁 주제 온·오프라인 콘텐츠의 제작·활용을 통한 대국민 이해 증진 및 교훈 전파
- 주요 내용 : 국가수호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국가수호 현충시설 네트워크 구축
 - 영상 콘텐츠 개발·제작 및 보급
 - 이동전시모듈 제작 및 순회전시
 - 기관 실무진 역량강화(실무진 워크숍, 실무진 직무교육 자료 제작(매뉴얼북, 영상, 키트), 학예 분야 자료 제공 및 자문



[그림 3-3] 이동전시모듈 제작 결과물(좌), 2021년 실무진 워크숍(우)

출처 : 전쟁기념관 내부자료(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결과보고서, 2021.12.31.)

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현충시설 관련 업무

- 지방보훈청은 전국 6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관할구역 내의 보훈업무와 함께 현충시설을 관리함
 - 서울지방청(서울, 경기, 강원), 대전지방청(대전, 충남, 충북), 대구지방청(대구, 경북), 부산지방청(부산, 울산, 경남), 광주지방청(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방청으로 구분되며,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함
 - 현충시설 지정시 신청을 받아 현장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로 제출, 필요시 시설 성격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문으로 수렴함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시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본부로 제출하고, 국비 건립 지원을 받을 경우 지방비를 일부 추가 지원받도록 함

[표 3-3]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 관할구역 현황

지방청	관할구역	보훈지청	세부 관할구역
서울 지방청	서울, 경기, 강원	서울지방보훈청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보훈지청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대전	대전광역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대전 지방청	대전, 충남, 충북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서천군
		충북남부보훈지청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대전현충원	

지방청	관할구역	보훈지청	세부 관할구역
대구 지방청	대구, 경북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상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청도군
		경북북부보훈지청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부산 지방청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 지방청	광주, 전남, 전북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전남동부보훈지청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함평군, 신안군, 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제주 지방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selectPvaamapWebList.do?key=252>)(검색일 : 2022.05.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자체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의 현충시설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¹³⁾
 -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근거,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 활동과의 관련성’, ‘현재 활용실태 또는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충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에 해제를 신청함
 - 특히, 현충시설과 관련하여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삼일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을 전후로 직접 실태조사 실행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함
-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 관리 및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관할구역 소유·관리자가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충시설지킴이’ 사업, ‘현충시설 활성화(제

13)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4.20)

협·탐방) 지원' 등에 대해 신청자를 모집·선정하는 등 사업을 지원함

- 대규모 현충시설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시설 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현충시설의 경우 사업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¹⁴⁾

※ 대구지방보훈청 현충시설 관련 주요 업무

■ 기관 개요

- 대구·경북 일원의 2개 보훈지청(경북북부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과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을 관할하는 기관

■ 조직 구성

- 총무과,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조직 구성
- 보훈과 현충교육팀 내 담당자 1인이 관할구역 내 현충시설을 관리

■ 현충시설 현황

- 관할구역 내 시설은 총 132개로, 비석, 탑, 동상 등 소규모 현충시설이 대부분

■ 주요 업무¹⁵⁾

- (시설 건립 보조) 신규 건립 시 건립추진위원회 등의 건립주체가 구성, 국가보훈처의 건립비용 보조를 받기 위해 신청 과정을 지방보훈청에서 보조
- (시설 지정) 관할구역 내 현충시설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을 경우, 지방보훈청에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서 접수
- (시설 해제) 관할구역 내 현충시설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지침 상의 기준에 준하여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처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
- (시설 관리) 3·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을 실시할 때 관할구역 내 활동가를 관리
- (시설 활용) 국가보훈처에서 '기념관 활성화사업' 및 '현충시설 활성화(체험·탐방)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 신청 및 예산 교부, 정산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보훈청 내 별도의 사업 예산은 없음



[그림 3-4] 대구지방보훈청 관할구역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87>)(검색일: 2022.05.20.)

14)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4.20)

15)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4.20.)를 바탕으로 작성함

2. 주체별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

□ 조사 개요

- (목적) 관리주체 별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충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체별 주요 현안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대상) 국내 현충시설은 소유주체가 다양함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도 다양화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기념사업회)** 등 각 주체별 현충시설 관리 방식을 살펴봄
 - 국내 현충시설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1,174개, 51.9%)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외 기념사업회(367개, 16.2%), 중앙정부(213개, 9.4%) 순으로 현충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¹⁶⁾
 - 독립기념관은 현충시설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인 개념의 현충시설은 아니지만, 현충시설의 기능 및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으로 포함함
- (방법) 문헌조사,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면담·인터뷰, 현장답사

[표 3-4]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대상

구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답사
중앙부처	독립기념관	○	○	○
	전쟁기념관	○	○	○
지자체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	○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
민간단체(기념사업회)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	○

출처 : 연구진 작성

16) 현충시설의 소유주체와 실제 관리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관리주체 현황은 소유주체별로 상이하여 전체 현충시설 차원에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1) 중앙부처

□ 독립기념관

[표 3-5] 독립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명칭	독립기념관	근거법	「독립기념관법」
국가/위치	대한민국 / 천안	건립년도	1987
유형	기념관	건립/관리기관	(건립)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관리)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예산규모	30,119백만 원 (2022 기준)	인력규모	총 157명(일반정규직 121명) (2022 기준)
규모	7개 전시관, 66동 건물 및 상징조형물 (394만㎡)		
건립목적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업무*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독립기념관법」 제6조(업무)에 따른 법정 업무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s://i815.or.kr/>)(검색일: 2022.04.2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독립기념관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운영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임
 - 1986년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87년 독립기념관 법인을 설치하고 준공 및 개관함
 -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경상 보조 및 자본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 보조금 90.4%와 자체수익 9.6%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과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자부담 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¹⁷⁾
 - 2022년 기준 30,119백만 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예산의 90.4%(27,225백만 원)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교부받고 있으며, 9.6%(2,894백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자체수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1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Id=C0065>)(검색일: 2022.05.20.)

- 자체수입은 부지 내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및 식음료점 등의 공간 임대수입과 주차 수입, 기타 판매수입(교육사업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예산은 30.2%(9,098백만 원)을 인건비로, 61.5%(18,533백만 원)을 사업비로, 7.4%(2,224백만 원)을 경상운영비로 운용하고 있음
- 학예연구관(사) 및 연구(위)원 등 전문 인력이 39.5%(62인)로 구성,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
 - 임원 1명, 일반정규직 121명, 무기계약직 35명 등 총 157인으로 구성됨
 - 조직은 사무처(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고객홍보부, 전시부, 교육부, 교류협력부), 연구소(학술연구부, 학술사업부, 자료부)로 구성됨
 - 독립기념관 내 학예연구관(사)은 31명, 연구(위)원 31명임¹⁸⁾
 - 전문 인력을 보유함에 따라 전시기획·연출 및 설계에 관한 업무, 국민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독립운동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각종 학술사업 성과물 제작, 한국독립운동사, 민족운동사, 국난극복사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을 직접 수행하고 있음



[그림 3-5] 독립기념관 조직도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s://i815.or.kr/2018/introduction/org.do>)(검색일:2022.05.20.)

18) 학예연구관(사): 고객홍보부 1명, 전시부 10명, 교육부 7명, 교류협력부 6명, 자료부 7명
연구(위)원: 교류협력부 1명, 학술연구부 4명, 학술사업부 21명, 자료부 5명

- 관람편의를 위한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및 국난극복사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 전시콘텐츠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람객 이해증진 및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매년 약 179만 명(2019년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3.2만 명(2019년 기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¹⁹⁾

[표 3-6] 독립기념관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1. 전시·연구 사업	전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난극복사 관련 자료의 전시를 통한 관람객 이해증진 및 민족의식 고취, 전시관 및 자료의 보존 관리 - 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료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향후 지속적인 역사자료발굴·기증을 도모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사 및 국난극복사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및 학술연구 - 각종 연구 성과물을 국민교육교재로 발간, 보급하고 이를 통한 민족사 정립과 전시의 학술적 지원
	교류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다양한 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시사업을 다각화하고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가치와 의의를 전달하는 토대를 마련 - 한국독립운동사 전시를 통해 현지인과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사를 알리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 형성에 기여
2. 교육·홍보·수익사업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대 국민 교육기능강화 - 상설전시관을 활용한 역사교육으로 간접적 역사체험 기회마련 - 교육내용 관련 체험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내용, 운영현황 및 각종행사 등 대 국민 홍보로 관람동기 유발 - 언론홍보 및 홍보 안내판 설치를 통한 홍보 강화
	고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편의 증대와 고객감동으로 재관람 동기부여 - 다양한 전문해설서비스 제공으로 관람객 재방문 동기부여 및 관람 만족도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지수 향상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사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서적 판매 -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효과 제고와 수익 증대 -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장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문화행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행사 관련 문화축제를 통한 관람객 증대 및 기관 활성화 -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기념관으로 이미지 제고
	3. 정보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효율성 확대와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 안정적인 전산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환경 개선
4. 시설사업	시설보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적기보수를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 관람편의시설 보원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
	위탁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내 경비·미화·방역 등 각종 용역을 통한 관람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 도모

19) 독립기념관(2019), 「독립기념관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pp. 30-45.

구분	주요 사업
5. 활성화사업	전시내용 교체
	MR콘텐츠개발
	관람환경개선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ald=C0065>)(검색일: 2022.05.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6] 독립기념관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 전쟁기념관²⁰⁾

[표 3-7] 전쟁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명칭	전쟁기념관	근거법	「전쟁기념사업회법」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건립년도	1989년(1994년 개관)
유형	기념관	건립/관리기관	(건립)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리)전쟁기념관
예산규모	23,801백만 원 (2022 기준)	인력규모	총 242명(일반정규직 75명) (2022년 기준)
규모	9개 전시실, 옥외전시장 및 기념조형물 (11.6만㎡)		
건립목적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사업*	1.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전쟁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전쟁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사업)에 따른 법정 사업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organ/organDisclosureDtl.do?apbald=C0115>)(검색일: 2022.05.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ld=C0115&reportFormRootNo=2020&disclosureNo=>)(검색일:2022.05.20.)

- 「전쟁기념사업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운영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임
 - 1988년 「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제4076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89년 전쟁기념사업회를 창립하고 1994년 개관함
 -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본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 보조금 80.3%와 자체수익 19.7%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과 주차 및 판매 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²¹⁾
 - 2022년 기준 23,801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예산의 80.3%(19,106백만 원)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보조받고 있으며, 19.7%(4,695백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자체수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부지 내 위치한 웨딩홀을 비롯한 공간 임대수입과, 주차수입,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됨
 - 예산은 47.3%(11,257백만원)을 인건비로, 45.5%(10,838백만원)을 사업비로, 7.2%(1,705백만원)을 기관운영비로 운용하고 있음
- 교육문화부, 전시유물부, 학예부 등의 인력이 47.9%(116명)로,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²²⁾
 - 임원 1명, 일반정규직 75명, 무기계약직 166명 등 총 242인으로 구성됨
 - 교육문화부(교육해설팀, 문화교류팀), 전시유물부(전시기획팀, 유물연구팀), 학예부(학예연구팀, 아카이브센터) 등 인력의 큰 부분을 학예사로 구성됨
 - 교육문화부(55명) : 교육해설팀 30명, 문화교류팀 10명, 안내센터 14명
 - 전시유물부(27명) : 전시기획팀 17명, 유물연구팀 9명
 - 학예부(20명) : 학예연구팀 8명, 아카이브센터 11명
 - 어린이박물관(14명)
 - 전문 인력을 보유함에 따라 유물 수집·보존·복원·관리 업무와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업무,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업무를

2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Id=C0115&reportFormRootNo=31401&disclosureNo=>)(검색일: 2022.05.20.)

22) 전쟁기념관 홈페이지(<https://www.warmemo.or.kr/front/introInfo/organ.do>)(검색일: 2022.05.20.)

직접 수행하고 있음

- 어린이박물관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시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7] 전쟁기념관 조직도

출처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https://www.warmemo.or.kr/front/introInfo/organ.do>)(검색일:2022.05.20.)

- 기념관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전쟁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쟁관련 학술 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 참전용사 명예고양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매년 약 220만 명(2019년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람객이 14.5만 명(2019년 기준)으로 파악됨²³⁾

[표 3-8] 전쟁기념관 주요 사업(2022년)

구분	주요 사업
학예부	중점과제 -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센터 구축
	일반과제 - 학예연구 역량강화 - 전사자 및 호국인물 관리 -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전시유물부	중점과제 - 임진왜란 430주년 특별전 개최 - UN실 전시개선(독일의료지원)
	일반과제 - 전시물 관리유지 - 영상시스템 제작 및 영상관리 - 소장유물 및 수장고 관리 - 유물 보존 및 복원 - 대형유물 복원 사업 - 전쟁·군사 유물관리 및 활용 - 훈증 / 연무소독

23)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공개 페이지(정보공개 자료-관람객 현황 (2020.03.28. 일자 계시됨)) (<https://www.warmemo.or.kr/front/news/administration.do>)(검색일 : 2022.05.20.)

구분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물 획득 - 거북선홀 콘텐츠 개발 - 영상장비 관리유지 - 체험시설 관리유지 - 전쟁기념관 전면개선 연구용역(이월사업)
교육문화부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노멀 시대에 맞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대표 문화브랜드 활성화(제2회 '유엔문화주간')
	일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관 '문화365' 활성화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전시해설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 국내·외 귀빈안내 - 해설 기자재 운영 - 입장 및 관람관리 - 적극적 정보서비스제공을 통한 생활 속 홍보 - 간행물 발간
관리운영부	중점과제 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개선
	일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계획 및 진행 - 건축·조경 및 토목 등 시설 관리유지
어린이박물관	일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콘텐츠 개발 및 보완 - 전시장 관리운영 - 어린이광장 시설개선

출처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공개 페이지(사전정보공개-2022년도 사업계획서)
 (https://www.warmemo.or.kr/front/news/administration.do)(검색일 : 2022.05.20.)를 참고하
 여 연구진 작성



[그림 3-8] 전쟁기념관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2) 지자체

□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²⁴⁾

- (시설 관리 현황) 춘천시 소재 현충시설 총 27개 중에서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6개로 파악됨

[표 3-9] 춘천시 관리 현충시설 목록

시설명	유형	주제	관리자	건립주체	건립년도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비석	6·25전쟁	춘천시	유엔한국참전국협회	1968
진병산 전적비	비석	의병운동	춘천시	-	-
의암 류인석선생 동상	동상	의병운동	춘천시	-	-
해주윤씨 의적비	비석	의병운동	춘천시	강원대학교	1982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	장소	6·25전쟁	춘천시	춘천시	2000
충열탑(춘천시)	탑	6·25전쟁	춘천시	강원도, 제3군단, 제9사단	1955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내 각 현충시설 정보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보훈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현충시설 주변 청결 관리 및 시설 관련 개보수 사항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춘천시 보훈단체 활성화 및 선양을 위해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8백만 원 예산을 책정(2020년 기준)²⁵⁾,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강원지부 춘천지회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특히, 현충일에 시 차원의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함
 -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 춘천시 내 보훈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리, 보훈단체 지원 업무가 주를 이루며, 현충시설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
 - 강원서부보훈지청에서는 주기적으로 노후 보훈회관 등 노후 현충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복지지원과 내 담당자 1명이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민간위탁, 주요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추진하고 있음

24) 춘천시 복지지원과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5.12.)

25) 춘천시 2020년 세입·세출 현황 자료

- 일부 현충시설은 공원 내로 이전하여 공원 관리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의암 류인석선생 동상은 2003년 선생의 숭고한 이념과 얼을 가까이서 느끼고, 높으신 나라사랑의 뜻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공원 내로 이전함
 - 도시공원 내의 동상은 녹지공원과에서 전반적인 공원관리와 함께 관리하고 있음
- 일부 보훈단체에서 현충시설 신규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신규 건립이 쉽지 않음
 - 신규 건립 시 국비 지원 및 성금 모집을 통해 예산을 확보함
- 지자체에서 현충시설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대상 안보의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충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특히 사유지가 아닌 개인 소유 부지에 건립된 현충시설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임

※ 춘천시 관리 사례

- | | |
|---|---|
| ■ 시설명 :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 | ■ 시설명 : 의암 류인석선생 동상 |
| ■ 시설종류 : 장소 | ■ 시설종류 : 동상 |
| ■ 주제분류 : 6·25전쟁 | ■ 주제분류 : 의병운동 |
| ■ 건립년도 : 2000년 | ■ 건립년도 : 1976년 |
| ■ 건립주체 : 춘천시 | ■ 건립주체 : - |
| ■ 기념 대상 :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3일간 저지시킴으로써 남침계획을 저지 | ■ 기념 대상 :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의암 류인석 |
| | ■ 이전 : 2003년 선생의 숭고한 이념과 얼을 가까이서 느끼고, 높으신 나라사랑의 뜻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공원 내로 이전 |



[그림 3-9] 춘천시 관리 현충시설 사례(좌: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 우:의암 류인석선생 동상)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진은 연구진 촬영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²⁶⁾

- (시설 관리 현황)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현충시설 총 10개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3개로 파악됨

[표 3-10]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 현충시설 목록

시설명	유형	주제	관리자	건립주체	건립년도
맥아더 장군 동상	동상	6·25전쟁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시	1957
인천 학도의용대 호국 기념탑	탑	6·25전쟁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 학도의용대 6·25참전회	2000
3·1독립만세 기념비	비석	3·1운동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주민센터	인천 덕교동 주민	1983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내 각 현충시설 정보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중구에서 직접 현충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원 내 위치한 현충시설의 경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수시로 시설을 정비, 보수함
 -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에서 공원 관리를 위한 근무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현충시설이 오염될 경우 협조를 구해 관리를 하고 있음
 - 인천보훈지청에서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설관리를 위해 지청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원비가 없음
- 복지정책과 내 담당자 1명이 현충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 관리의 전문성이 미흡함
- 매년 현충시설에서 3.1절 행사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의 가치 확산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6)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5.12.)

※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 사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맥아더 장군 동상 ■ 시설종류 : 동상 ■ 주제분류 : 6·25전쟁 ■ 건립년도 : 1957년 ■ 건립주체 : 인천시 ■ 기념 대상 : 맥아더(Douglas McArthur) 사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3·1독립만세 기념비 ■ 시설종류 : 비석 ■ 주제분류 : 3·1운동 ■ 건립년도 : 1983년 ■ 건립주체 : 인천 덕교동 주민 ■ 기념 대상 : 조명원·조종서·최봉학·문무현 등이 주민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3월 28일 관창리 광장에 150여명의 주민이 모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 시위행진 |
|--|---|



[그림 3-10] 인천광역시 중구 관리 현충시설 사례(좌: 맥아더 장군 동상, 우:3·1독립만세 기념비)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내 각 현충시설 정보 참고

(http://mfis.mpva.go.kr/memorial/movementView.do?gubunCode=ALL&sid=369&pageIndex=1&searFacilgubun=&searTopicsort=&searAddr_sigun=&searMpvabranch=&searVR=&searGbn=tit&searTxt=%EB%A7%A5%EC%95%84%EB%8D%94+%EC%9E%A5%EA%B5%B0)(검색일 : 2022.05.20.)

(http://mfis.mpva.go.kr/memorial/movementView.do?gubunCode=ALL&sid=371&pageIndex=1&searFacilgubun=&searTopicsort=&searAddr_sigun=&searMpvabranch=&searVR=&searGbn=tit&searTxt=%EB%8F%85%EB%A6%BD%EB%A7%8C%EC%84%B8+%EA%B8%B0%EB%85%90%EB%B9%84)(검색일 : 2022.05.20.)

3) 민간단체(기념사업회)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표 3-11] 백범김구기념관 운영·관리 개요

명칭	백범김구기념관	근거법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건립년도	2002년
유형	기념관	건립/관리기관	(건립)(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관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예산규모	2,800백만 원 (2022 기준)	인력규모	총 27명(2022 기준)
규모	2개 전시관, 컨벤션센터(대회의실, 교육장), 백범광장 등 (1.8만㎡)		
건립목적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거대한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 (1876~1949)의 삶과 사상을 알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http://www.kimkoomuseum.org/hal/hal_1_1.asp)(검색일: 2022.05.20.)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가 건립하였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에 기부채납,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관리위탁을 체결,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있음
 - 2002년 총 사업비 167억(국고 160, 성금 7억)으로 건립되었으며, 건립 이후 2005년부터 신규 5억 원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 현재 매년 국고 18억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보조금 64.3%와 자체수익 35.7%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²⁷⁾
 - 2022년 기준 약 2,8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예산의 64.3%(1,800백만 원)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조받고 있으며, 35.7%(1,000백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자체수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부지 내 위치한 대회의실 및 교육장 등 공간 임대수입으로 구성됨

27)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5.17.)

- 기획관리부, 기념사업부, 자료실의 조직구조로 구성, 학예직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하고 기획하기에 한계가 있음
 - 기획관리부 7명, 기념사업부 7명, 시설관리(용역) 1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됨
 - 기념사업부는 학예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전시관리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학술연구를 통해 전시 콘텐츠를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그림 3-11]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조직도

출처 :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http://www.kimkoomuseum.org/hal/hal_1_3.asp)(검색일:2022.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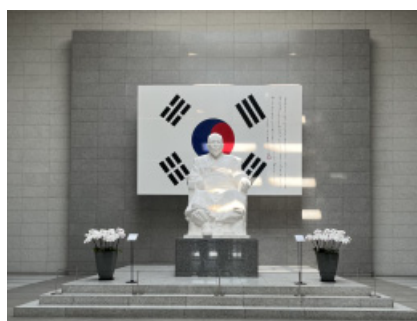
- 주로 문화행사 개최, 전시관 운영·관리, 소장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별도 사업을 추진 시 지원 받아 운영함
 - 10년을 주기로 전시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처에 별도 예산을 추가 배정 받아 전시콘텐츠 개선 및 설치 용역을 실시함
 - 매년 약 15만 명~18만 명(2019년 기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됨²⁸⁾

- 기념관 입지 특성상 방문객을 유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고자 이동식 전시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쓰기 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고등학교에서 신청 시 「백범일지」를 학교 도서관에 기증, 우수한 감상문을 선정하여 백범장학금을 수여함

[표 3-12]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기획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 직원의 채용·복무·교육·훈련·급여 -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물품과재산의 관리 - 시설임대 및 판매관리 - 건물과 시설의 관리와 방호 - 시설용역업체의 지도·감독 - 수목·잔디 등의 조경관리 - 문화상품(기념품) 개발
기념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험학습, 전시해설 등) - 문화행사 개최 -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 도슨트와 자원봉사자의 운영 - 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리 - 기념관과 사업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 국내·외 문화기관과 문화교류 - 소장 유물의 구입·대여·기탁과 관리 -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 복제·복사와 촬영 등의 허가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보관·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수리·복원·촬영 - 도서자료의 구입·보관·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과 배포

출처 :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http://www.kimkoomuseum.org/hal/hal_1_3.asp)(검색일: 2022.05.20.)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2] 백범김구기념관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28)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담당자 인터뷰(인터뷰 일자 : 2022.05.17.)

3. 소결

□ 국가보훈처의 역할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는 전국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을 담당함
- 기념관과 같은 대규모 현충시설은 기념관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우수 사업 실시기관에 포상하는 등 기념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운영관리의 역량이 미흡한 기념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기념관 협력망을 주제별(독립운동, 국가수호 등)로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기념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은 국내 현충시설의 중심 기관으로서 각각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현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함
 - 현충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학예 분야 워크숍을 통해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소규모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거나 관리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 내 소규모 현충시설은 인접한 시설 및 지역 관광지와 연계성을 통해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함

□ 주제별 현충시설 운영·관리 현황

- (중앙부처) 법에 근거하여 운영을 위한 경비의 80~90%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학예연구관(사) 및 연구(위)원 등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전문 인력을 보유함에 따라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 및 해석하고 있음

- 관련된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유하는 기관으로서 부지 내 추모·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나, 연관된 기념일에 주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사건과 인물에 대한 추모·기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희생된 인물에 대한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에서 소수의 담당자가 보훈업무와 함께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주변 청결 관리 및 시설 관련 개보수 사항 모니터링 정도가 주 업무로,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별도의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는 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보훈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적인 시설 관리가 어려움
 - 춘천시의 경우, 사유지에 건립된 현충시설도 있기 때문에 시설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의 역할이 제한적임
- 일부 현충시설은 공원 내로 이전하여 공원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춘천시는 나라사랑의 뜻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현충시설을 공원 내로 이전, 공원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공원과 통합적으로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민간단체)** 다수의 민간단체는 현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워 국가보훈처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이외 학예직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자료 수집이나 학술연구를 통한 전시 콘텐츠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주로 문화행사 개최, 전시관 운영·관리, 소장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별도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아 운영함
 -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직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 종합 및 시사점

-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현충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소유·관리주체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 역량 및 여건이 상이하므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시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의 개발 또는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 현재 기념관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협의체 및 협력망을 보다 강화하여 현충시설 관리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보완 및 상호발전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구(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현충시설 유형별로 다각화할 뿐만 아니라 현충시설의 유형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국가차원에서 현충시설의 바람직한 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현충시설을 쉽게 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입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충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인접한 다양한 시설 및 관광지와 연계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가 소규모 현충시설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발굴된, 지역 내 현충시설 우수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현충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제4장 현충시설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1. 조사 개요
 2.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
 3.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현충시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기념·추모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로,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나 문화재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지닌 상징적 시설임
- 현충시설의 주요 목적인 역사적 사실의 전달, 기념·추모 및 공훈 선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활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충시설 및 기념·추모 시설 중 사회적, 교육적, 역사적, 지역적, 예술적 기능 등을 실현하고 있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현충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 및 현충시설의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국내·외 현충시설²⁹⁾ 우수사례
 - 국내·외 현충시설 중 건립·지정·관리·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 및 기능을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이외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사례의 경우,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된 기념·추모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참전용사 및 제대 군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시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 사례 조사의 범위를 현충시설 이외에 기념 또는 추모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확장하여 검토함
 -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이외에, 역사적 참사 또는 재난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설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화, 전승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기념·추모시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표 4-1] 사례조사 대상 목록

①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 ³⁰⁾					
시설명	소재지	유형	주제	건립년도	관리기관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기념관	독립운동	1987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산하)
서대문 독립공원	서울 서대문구	기념관, 동상 탑 등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1992 (2009 재개장)	서대문구 공원관리팀
순천시 현충정원	전남 순천시	조형물	6.25전쟁	2018 (1979 건립)	전남 순천시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미국 앤더슨빌	사적, 국립묘지	미국 남북전쟁	1864	내무부 국립공원청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미국 워싱턴	기념비	베트남전쟁	1982	내무부 국립공원청

29) 현충시설의 범위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현충시설과 유사한 공훈선양 기능을 수행하는 광의적 시설을 포함하여 선정함

②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시설명	소재지	유형	주제	건립년도	관리기관
망우역사문화공원	서울 중랑구	묘지공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외)	1933	중랑구청
9.11 메모리얼	미국 뉴욕	공원, 기념관	9.11 테러	2006	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비영리법인)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독일 베를린	비석	제2차 세계대전	1996	슈톨퍼슈타인 베를린 조정사무소

출처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분석 방법

- **(사례별 개요 조사)** 문헌 조사를 통해 각 시설별 유형, 건립년도 및 기관, 건립목적, 관리기관, 주제, 기념대상, 연혁, 운영 프로그램, 주변 지역·장소와의 연계성 등 기초 내용을 조사함
- **(사례별 기능·역할 분석)** 각 사례별 현충시설의 기념·추모 기능을 활성화하고 역사적 사실 전달 또는 공훈 선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기능 및 역할, 전략 등을 분석함
- **(종합분석)** 사례 종합 및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30) 순천시 현충정원만 법적 현충시설이며, 독립기념관, 앤더슨 빌 국립사적지,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은 광의의 현충시설이라 볼 수 있음. 서대문 독립공원 자체는 현충시설이 아니며, 다수의 현충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임

2. 국내·외 현충시설 우수사례

1) 독립기념관: 국내 현충시설 기념관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시설 개요

- 독립기념관은 1986년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법인)임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법적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충시설로 지정된 국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함

[표 4-2] 독립기념관 시설 개요

명칭	독립기념관		
국가/위치	대한민국 / 천안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
유형	기념관	건립/관리기관	(건립)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관리)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건립년도	1987	규모	7개 전시관, 66동 건물 및 상징조형물 (394만㎡)
건립목적	1980년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단초가 되어 모아진 국민 성금으로 건립됨 독립운동 역사 보존·계승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사회통합		
관련사건	일제강점기(1910~1945) 항일 독립운동 외		
기념대상	항일 독립운동가 및 외세 침략 대응		
연혁	1982.8.31. 성금모금 착수 1983.8.15. 기공식 1986.5.9. 독립기념관법 공포시행(법률 제3820호) 1986.8.20. 독립기념관 법인 설립 1987.2.10. 독립운동사연구소 설립 1987.8.15. 독립기념관 준공 및 개관 1998.8.11. 구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공원 조성 2005.5.18. 소관부처 이관(문화관광부→국가보훈처) 2008.1.1. 독립기념관 무료관람 시행(법률 제 8536호) 2008.10.7. 밝은누리관(교육관) 개관 2015.9.9. 다목적 체험교육관(겨레누리관) 준공 2015.12.22. 국가상징 선양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17.8.30. 겨레의 집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국민 대개방 2019.3.1. 체험관 함께하는 독립운동 재개관 2019.12.20. 국내 최초 MR독립영상관 준공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s://i815.or.kr/>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검색일: 2022.04.27.)

□ 주요 사항³¹⁾

- 전국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등 교육협력망 사업 주관
 - 2011년부터 전국 기념관이 독립기념관에 모여 각 기념관의 전시, 교육 등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개최 및 지원함
 - 현충시설 교육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전국 현충시설(기념관) 업무편람 발간 및 배포함³²⁾
 - 전국 기념관 모바일 안내 서비스인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함
 - 최근 전국 기념관 소장 자료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개발 기획 단계에 있음
- 전국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 및 배포
 - 어린이·청소년 및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 후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 피드백을 반영하고 누적함³³⁾
 -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체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지표는 전국 기념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함³⁴⁾
- 전국 기념관 전시물 대여 및 지원
 - 각 지역 기념관에 순회 전시가 가능한 전시물 대여를 지원함(예: 독도 역사·자연 사진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전, 문화재 태극기 사진전 등)



독립기념관 거례의 집



독립기념관 광장

[그림 4-1] 독립기념관 주요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31) 이하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 담당자 인터뷰(2022.04.08.)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32) 독립기념관(2021), 「전국 현충시설(기념관) 업무편람」, 독립기념관, pp.285-291.

33) 독립기념관 교육부(2022), 「2021 독립기념관 교육사업 운영보고서」, 독립기념관.

34) 이연수 외(2021), 「2021년 독립기념관 교육 평가지표 기초개발」, 독립기념관.

2) 서대문 독립공원: 공원 내 현충시설 군집화를 통한 테마화 및 일상공간 연계

□ 시설 개요

- 서대문 독립공원은 (구)서울구치소 이전에 따라 1992년 개원하였으며, 1995년 서대문형무소 성역화사업에 따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조성, 이후 2007년부터 시작된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
- 서대문 독립공원 내 현충시설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사적), 3.1독립선언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 독립관, 송재 서재필 선생 상이 위치하며, 문화재인 독립문(사적)과 영은문주초(사적)가 위치함
- 공원 내 현충시설 및 문화재 간 연계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리모델링 후 2009년 재개장함

[표 4-3] 서대문 독립공원 시설 개요

명칭	서대문 독립공원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공원(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유형	역사공원	건립/관리기관	(건립)서울시 (관리)서대문구 공원관리팀
건립년도	1992 (2009 재개장)	규모	113,021.7㎡
건립목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렀던 애국지사의 자주독립 정신 전승		
관련사건	대한제국기 외세 침략 대응 독립운동 및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연혁	1986.6.26. 서울구치소 이전계획 확정 1987.3.20. 공원조성 계획 발표 1988.2.20. 서대문형무소 사적 지정 1992.8.15. 서대문독립공원 개원, 지하옥사 복원 1995.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계획 수립 1998.11.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2007.4.16.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 2009.10.28. 서대문 독립공원 리모델링 후 재개장		

출처 :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독립공원'(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ldx=30)(검색
일: 2022.05.18.); 재단법인 아름지기(2007), 「서대문형무소 활용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자료를 참고
하여 연구진 작성

[표 4-4] 서대문 독립공원 내 현충시설 현황

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서대문 독립공원 내
유형	기념관	건립/관리기관	(건립/복원)서대문구 (관리)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건립년도	1908 (1988 개관)	규모	대지면적 28,112㎡ 연면적 8,264.67㎡
건립목적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운동가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 기억 및 기념		
기념대상	항일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운동가		
주요 연혁	1908.10.21. 경성감옥으로 업무 시작 1987.11.15.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이전 1988.2.20. 서대문형무소 문화재(사적) 지정 1998.11.5.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② 3.1독립선언 기념탑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서대문 독립공원 내
유형	탑	건립/관리기관	(건립)재건국민운동본부 (관리)독립공원관리사무소
건립년도	1963 (1992 이전)	규모	가로 1.8m×세로 1.8m×높이 4.2m
건립목적	3.1운동에서 시작된 전 민족적인 항일독립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림		
기념대상	3.1운동 애국지사		
주요 연혁	1963.8.15. 국민성금 모금을 통해 탑골공원에 조성 1979. 탑골공원 정비사업으로 철거 및 방치 1992.8.15. 서대문독립공원 개원 시 이전하여 재건립		

③ 순국선열추념탑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서대문 독립공원 내
유형	탑	건립/관리기관	(건립)순국선열유족회 (관리)독립운동관리사무소
건립년도	1992	규모	가로 40m×세로 8.7m×높이 22.3m
건립목적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순국하거나 옥고를 치른 순국선열 기림		
기념대상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		

④ 독립관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서대문 독립공원 내
-------	-----------	---------------------	------------

유형	사당	건립/관리기관	(건립)서울시 (관리)(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건립년도	1996	규모	지상 1층 한식 목조건물 (정면 6칸, 측면 4칸, 7랑 팔작지붕)
건립목적	옛 독립협회 사무실을 고증에 따라 순국선열 위패 봉안 및 전시공간으로 복원		
기념대상	순국선열 (위패 봉안)		
주요 연혁	1894 기존 모화관(중국 사신 접대) 건물 개수, 독립협회 사무실인 독립관으로 개칭하여 애국토론회 장소로 사용 1996 일제강점기 철거되었으나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 시 복원하여 건립		

⑤ 송재 서재필선생 상

명칭	송재 서재필선생 상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서대문 독립공원 내
유형	동상	건립/관리기관	(건립)송재서재필선생동상건립위원회 (한국신문협회 주축) (관리)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건립년도	1990	규모	가로1.5m×세로1.5m×높이6.3m
건립목적	독립신문 창간 94주년 및 신문의날 34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인들을 주축으로 서재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		
기념대상	서재필 (독립협회 설립자 및 독립신문 발행인)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mfis.mpva.go.kr/main/main.do>);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독립공원' (<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ldx=30>)(검색일: 2022.05.1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홈페이지(https://sphh.sscmc.or.kr/hall/hallview_01.php); 재단법인 아름지기(2007), 「서대문형무소 활용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³⁵⁾

- 성역화 사업을 통한 현충시설·문화재 군집화 및 전담 관리기관 지정·운영
 - 1992년 서대문독립공원 개관 당시 사적으로 지정된 서대문형무소 복원 및 순국선열추념비 건립, 3.1독립선언 기념탑 이전 건립 등을 통해 독립공원 내 기념물 군집화를 시작함
 - 1995년 서대문형무소 성역화사업 추진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사적 지정 영역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계획하여 1998년 개관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및 사적보수 등을 전담 관리함

35) 재단법인 아름지기(2007), 「서대문형무소 활용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독립공원'(<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ldx=30>) 참고

- 공원 정비 사업을 통한 현충시설-문화재-일상공간 간 연계 및 접근성 개선
 - 2007년 리모델링 당시 공원과 형무소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을 연계하고 서대문형무소를 공원의 연계 거점으로 조성하며, 공원과 역사가 단순 병치가 아닌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보행환경 및 경관의 지속성을 확보함
 -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을 주었던 공원 입구 주택, 상가지역 및 시설 정비와 함께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화함
 - 현충시설과 문화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기존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독립문(사적) 또한 공원정비 사업을 통해 11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원 내 3.1독립선언 기념탑

[그림 4-2] 서대문 독립공원 주요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3) 순천시 현충정원: 장소 이전으로 접근성 개선 및 시민참여형 예술기념물 조성

□ 시설 개요

- 현충정원은 죽도봉 공원의 현충탑을 순천만 국가정원 내부로 이전하면서 순국선열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정원 형태로 2018년 새롭게 조성함
 - 기존 현충탑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보훈단체의 방문조차 어려워 현충탑 이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
- 설치미술 작가는 기존 참탑 형식을 벗어난 기념물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조성과정에 순천 시민 및 학생 65,000여 명을 참여시켜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을 공간에 구현하고자 함

[표 4-5] 순천시 현충정원 시설 개요

명칭	순천시 현충정원		
국가/위치	대한민국 / 전남 순천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순천만 국가정원
유형	조형물 (현충시설)	건립/관리기관	(건립)전남 순천시 (관리)전남 순천시
건립년도	2018 (1979 현충탑 건립)	규모	2,244㎡(높이 3.8m, 지름 36.5m)
건립목적	1948년 여순사건과 1950년 6.25전쟁 당시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의 넋을 추모(따로 봉안해왔던 위령탑 및 충혼비 등을 합하여 합동 봉안)		
관련사건	6.25 전쟁(국가수호)		
기념대상	여순사건 및 6.25전쟁 호국영령 1,830위 (합동 봉안)		
연혁	1979. 죽도봉 공원 현충탑 건립 2017.5.1. 순천시 현충탑 신규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17.11.13. 현충정원 디자인 선정 및 국가정원 내 설치 계획 2018.3.26. 현충정원 조성공사 시행 2018.6.5. 순천시 현충정원 준공 2018.7.13. 365 나라사랑 현충정원 운영계획 수립		

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mfis.mpva.go.kr/main/main.do>)(검색일: 2022.05.11.);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https://scbay.suncheon.go.kr/garden>)(검색일: 2022/05/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³⁶⁾

- 현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정원으로의 장소 이전 및 해설 지원
 - 기존 죽도봉 공원 현충탑은 외지고 찾기 힘들며 경사로에 위치하여 보훈단체 회원의 방문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보훈단체에서 현충탑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이에 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순천만 국가정원(국가정원 1호) 내 현충탑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현재 현충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위치하여 국가정원 내 다양한 테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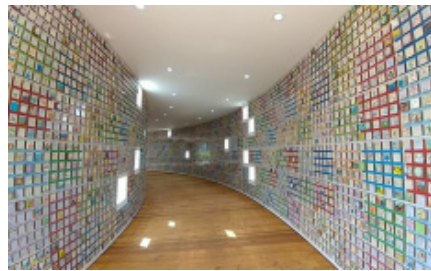
36)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https://scbay.suncheon.go.kr/garden>)(검색일: 2022.05.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원과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국가정원 해설사 프로그램의 주요 관람코스 중 하나로 방문객들이 현충정원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프로그램을 지원함

- 시민참여형 예술기념물 조성
 - 엄숙하고 경건한 보훈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친숙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충탑 이전 시 기존 현충탑은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로 조성함
 -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 작가 강익중의 달항아리 작품과 순천시민 65,000명이 3인치(7.62cm) 정사각형에 그린 그림으로 구성됨
 - 시민작품 65,000점은 DB화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 내 검색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순천시 현충정원



순천시 현충정원 내부 시민작품

[그림 4-3] 순천시 현충정원 주요 전경

출처 :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https://scbay.suncheon.go.kr/garden/0002/0002/0002/>)(검색일:2022. 05.11.)

4)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참여·체험형 기념행사 연례화, 전쟁유산 탐방코스 연계

□ 시설 개요

- 앤더슨빌 국립사적지는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 남군 군인들이 북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한 방벽으로, 현재 캠프 섬터 남북전쟁 군사감옥 부지, 앤더슨빌 국립 묘지, 국립 전쟁 포로 박물관으로 구성됨
-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연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조지아 주 내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주요 사적지로서 '조지아 주 제2차 세계대전 문화유산 트레일코스'와 연계하여 운영됨

[표 4-6]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시설 개요

명칭	앤더슨빌 국립 사적지(Andersonville National Historic Site)		
국가/위치	미국 / 조지아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조지아 주 제2차 세계대전 문화유산 트레일 코스
유형	국립묘지 (National Cemetery)	건립/관리기관	(건립)미군(남북전쟁 당시 남군) (관리)내무부 국립공원청
건립년도	1864	규모	약 2,084,000㎡(515 acre)
건립목적	남북전쟁 시 남군의 북군 포로수용소로 처음 건립되었으며, 이후 포로 및 전쟁 사망군인, 제대군인 안장을 위해 국립묘지 및 사적지 조성		
관련사건	미국 남북전쟁		
기념대상	남북전쟁 사망자 및 포로 사망자, 전쟁 군인 사망자 및 제대군인 사망자 (안장)		
연혁	1864.2.27. 캠프 섬터 군사 감옥에서 사망한 북군 포로 수감자 매장 1865.7.26. 캠프 섬터 포함 묘지 부지를 앤더슨빌 국립묘지로 지정 1868. 병원, 전투, 수용소에서 사망한 13,800명 이상 북군 군인 유해 안치 1870. 군인 및 유가족 안장 시작 1970. 묘지 및 관련 교도소 부지 국립 공원에 편입 2015. 누적 20,000여기 묘지 매장		

출처 :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https://home.nps.gov/ande/index.htm>)(검색일: 2022.05.22.)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

- 시민참여 및 체험형 기념행사 연례화를 통한 보훈문화 형성
 - 매년 3월 ‘살아있는 역사 주말’(Living History Weekend) 체험 행사에서 전쟁 포로생활 체험, 대포 쏘기 행사, 죄수를 돕는 가톨릭 사제 역할 체험, 양키 수감자에 대한 남부 민간인 여성들의 복합적 견해에 대한 강연 등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남북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전쟁 중 명령을 따라 생명을 죽이거나 구하기도 하는 군인의 입장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매년 12월 ‘전국 화환 프로그램’(Wreaths Across America)에서는 연말 휴가 시즌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비영리 조직 및 개인을 통해 후원받은 화환을 특정 개인의 무덤 또는 방문자 없이 방치된 무덤에 헌화하며, 화환 제공 및 배치는 민간단체 및 시민의 주도로 진행됨

- 조지아 주 내 전쟁유산 탐방코스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기여³⁷⁾
 - 앤더슨빌 국립사적지의 국립 전쟁 포로 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전쟁유적지로 구성된 ‘조지아 제2차 세계대전 문화유산 트레일(Georgia World War II Heritage Trail)’이 2021년 2월부터 계획, 운영되고 있음
 - 탐방코스의 슬로건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군대를 동원했을 때, 조지아 인들은 국가의 부름에 답했다”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3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음



앤더슨빌 국립묘지



사적지 내 포로수용소

[그림 4-4]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주요 전경

출처 :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https://www.nps.gov/ande/index.htm>)(검색일: 2022.05.16.)

5)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공개 설계 공모를 통한 새로운 기념조형물 선례

□ 시설 개요

- 1975년 베트남전쟁 종료 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던 미국 군인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치유와 돌봄을 위한 기념 공간을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가 있었던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상징적으로 조성함
- 민간 비영리단체인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기금(Vietnam Veterans Memorial Fund)가 주도하였으며, 대국민 대상 설계공모를 통해 마야 린(Maya Lyn, 당시21세 대학생)이 설계한 벽 형태의 기념비(안)가 당선됨
- 연간 5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방문하는 벽 형태의 기념비 이외에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세 명의 군인 동상, 참전여성 동상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

37) Georgia World War II Heritage Trail 홈페이지(<https://www.georgiawwiitrail.org/#map>)(검색일: 2022.05.16.) 참고

[표 4-7]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시설 개요

명칭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 Veterans Memorial)		
국가/위치	미국 / 워싱턴	입지 (사적지, 공원 등)	워싱턴 내셔널 몰 및 기념공원(National Mall and Memorial Parks)
유형	기념비 (조형물, 동상)	건립/관리기관	(건립)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기금 (VVMF, 비영리법인) (관리)내무부 국립공원청
건립년도	1982	규모	약 8,100㎡(2 acre)
건립목적	베트남 참전용사 안 스크러그(Jan Scruggs)가 동료 병사의 봉사과 희생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치유와 돌봄을 위한 상징적 기념관 조성 제안		
관련사건	베트남전쟁(1955-1975) 미국 참전		
기념대상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및 간호사, 의사 등으로 전쟁에 복무한 여성 58,000여명		
연혁	1977. 재향군인 건강관리 법 개정에 관한 청문회에서 기념관 조성 제안 1979.4. 귀국한 베트남 참전용사를 위한 베트남 재향군인 주간 선포 1979.4.27.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기금(VVMF) 설립 1979.12. 메모리얼 조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 시작 1980.7.1. 내셔널 몰 내 메모리얼 조성을 위한 2acre 토지 제공 법안 승인 1981.5. 설계공모 결과 마야 린(Maya Lyn) 당선 1982.3.26. 메모리얼 기공식 1982.11.11. 미국 재향군인의 날 메모리얼 헌납식 개최		

출처 :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기금(VVMF) 홈페이지(<https://www.vvmf.org/About-The-Wall/history-of-the-vietnam-veterans-memorial/>)(검색일: 2022.05.1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

- 워싱턴 내셔널 몰의 대표적 기념물로서 냉전 시대 미국의 참전 의미 상징
 - 장기화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에서 전쟁 종료 후 귀국한 재향군인을 위한 보상 및 지원, 기념일 지정, 기념비 조성 등 관련 여론이 형성됨
 - 내셔널 몰은 수도 워싱턴의 상징적 공간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 시위가 열린 곳으로, 의회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내셔널 몰 내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조성을 위해 2에이커 토지 제공 관련 법안이 승인됨³⁸⁾
 - 현재 내셔널 몰에서 연간 5백만 명 이상의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대표적

38) National Park Foundation 홈페이지(<https://www.nationalparks.org/connect/blog/24-things-know-when-visiting-vietnam-veterans-memorial>)(검색일: 2022.05.18.)

시설로서, 링컨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모리얼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냉전시대 미국의 전쟁 참전 의미를 되짚고 퇴역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돌봄을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일반인 공개 설계 공모를 통한 새로운 기념조형물 선례 형성
 - 민간 비영리법인인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기금(VVMF)는, 미국 국민들이 기념관 조성 성금을 모았던 것처럼 설계안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일반인 공개 설계공모를 진행함
 - 총 3,800여 팀이 참여하여 1년여 간 진행된 설계공모에서 예일대 학생이었던 마야 린(Maya Lin)의 설계안이 당선, 당시 일반적이던 동상이나 수직적 조형물과 달리 V자형 기념벽 형식의 기념조형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음³⁹⁾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내 기념일 행사

[그림 4-5]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주요 전경

출처 :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https://www.nps.gov/ande/index.htm>)(검색일: 2022.05.18.)

39) James E. Young, (2016), 「The Stages of Memor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14-17.

3. 국내외 기념 및 추모시설 우수사례

1) 망우역사문화공원: 역사적 장소 발굴 및 탐방코스 조성, 주민 참여 운영

□ 시설 개요

- 1933년 경성부 공동묘지로 조성된 망우리 묘지는, 2000년 전후 중랑구 공원정비계획에 따라 산책로 및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장소의 인문학적 역사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조성됨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및 근현대 저명인사의 묘역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해당 묘역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역 내 역사탐방코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원 내 인물들을 함께 기념하면서 묘소를 관리할 ‘영원한 기억봉사단’을 모집하여 진입로 정비, 잡풀 제거, 묘비 관리, 헌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묘역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4-8]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개요

명칭	망우역사문화공원		
국가/위치	대한민국 / 서울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중랑구 역사문화코스 중랑구 인문학길 ‘사잇길’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용마야차산 코스)
유형	묘지공원	건립/관리기관	(건립)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서울특별시 중랑구(망우리공원과)
건립년도	1933 (2005 공원화)	규모	832,800㎡(25만평)
건립목적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기에 희생된 애국지사 및 독립운동가 등 안장, 독립운동가 및 저명인사들을 추모하고 관련인물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공원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기념대상	애국지사(한용운,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유상규), 문화예술인(이중섭, 강소천, 박인환, 권진규, 계용목, 김상용), 독립운동가(유관순, 안창호, 조봉암), 명운공주, 차중락, 노필, 지석영, 김호직 등		
연혁	1933.5. 망우리 공동묘지 개원 1973.3. 묘역 부족에 따른 매장종료(총 47,754기) 1992.7. 역사적 인물 7명 묘역 연보비 첫 설치		

1998.	공원 내 산책로 사색의 길 조성
2005.12.	망우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2012.	한용운 묘역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2013.	망우리공원 서울미래유산 선정
2016.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7.	서광조, 서동일, 방정환 등의 묘역 등록문화재 추가 지정
2022.4.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중랑망우공간' 개관

출처 :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https://www.jungnang.go.kr/manguriPark/main/contents.do?menuNo=2800007>)(검색일 : 2022.05.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

- 애국지사 묘역 발굴 후 테마별 탐방코스 조성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근대기 인물 묘역을 조사·발굴하여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원에 안장된 유명인사 묘역을 찾아내어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발굴된 근대 인물 묘역을 ‘애국지사의 길’, ‘근대의학 선구자의 길’, ‘근현대 문학길’, ‘근현대 미술길’, ‘언론선구자의 길’, ‘종교지도자의 길’ 등 테마별 탐방 코스로 조성하여, 방문객이 주제별 주요 인물들의 묘역을 산책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중랑문화원에서는 문화해설 탐방코스인 ‘향토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요청할 경우 향토문화해설사가 직접 지역 문화재 및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리
 - 향토문화해설사의 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이야 놀자’를 운영함
 - 특히 유족이 없거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60개소의 묘소 관리를 위해 단체, 기업, 가족봉사단으로 구성된 ‘영원한 기억봉사단’을 모집하여 월 1~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4-6] 망우역사문화공원 애국지사의 길

출처 :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https://www.jungnang.go.kr/manguriPark/main/contents.do?menuNo=2800040>)(검색일 : 2022.05.11.)



망우역사문화공원 인물전시관



유관순 이태원합장비

[그림 4-7] 망우역사문화공원 주요 전경

출처 : 연구진 촬영

2) 9.11 메모리얼: 테러 발생 장소에 조성된 공공의 추모공간 및 박물관

□ 시설 개요

- 2001년 9.11 테러로 붕괴된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 테러 희생자 및 구조 작업 시 순직한 소방관·경찰관 등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공간을 조성함
- 지상의 메모리얼은 테러 희생자 및 순직자의 이름이 새겨진 2개의 선큰 구조물이 추모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하 박물관은 9.11 테러 당시의 붕괴의 흔적과 유류품 전시, 역사적 사실 전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적 추모를 통한 임시 메모리얼에서 출발하였으며, 영구적 메모리얼 조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전달과 희생자의 추모, 기억의 전승 역할을 하고 있음

[표 4-9] 9.11 메모리얼 시설 개요

명칭	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9/11 memorial & museum)		
국가/위치	미국 / 뉴욕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뉴욕 맨해튼 투어 루트 포함
유형	추모공원, 박물관	건립/관리기관	(건립)로어 맨해튼 개발법인(LMDC) (관리)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구 세계무역센터메모리얼재단, 비영리법인)
건립년도	2011	규모	약 64,750㎡(16 acre)
건립목적	9.11 테러로 인한 세계무역센터의 상실 및 피해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로서, 9.11 테러 희생자 및 소방관 등 순직자 추모		
관련사건	2001년 9.11 테러		
기념대상	9.11 테러 희생자 및 소방관, 경찰관 등 순직자		
연혁	2003. 로어 맨해튼 개발법인(LMDC) 국제 공모 실시 2004.1.6. 당선작 선정("Reflecting Absence") 2006.8.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공사 시작(세계무역센터메모리얼재단,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 주관) 2007. 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으로 관리기관 개명 2011.9.11. 테러 10주기 추모식 및 메모리얼 개장 2014.5.15. 박물관 개장(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및 오바마 대통령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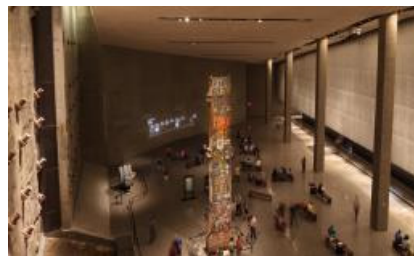
출처 : 9.11 memorial 홈페이지(<https://www.911memorial.org/visit/memorial/about-memorial>)(검색일: 2022.03.23.); (<https://timeline.911memorial.org/#Timeline/3>)(검색일: 2022.03.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사항

- 테러 발생 장소에 조성되어 역사적 사실의 생생한 보존 및 전달 수행
 - 9.11 메모리얼의 위치는 테러 발생 당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건물의 위치이며, 지상에 조성된 2개의 사각형 추모시설은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배치되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메모리얼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있음
 - 테러 시 무너지지 않은 마지막 기둥이나 살아남은 나무, 구조 작업에 사용된 파손된 소방차 등 테러 당시의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줌
- 시민의 자발적 기여와 관심을 기반으로 조성 및 관리·운영 단체 조직
 - 9.11 테러 직후 사망자를 기리기 위해 뉴욕 곳곳에 자발적으로 조성되었던 임시 메모리얼의 결과로 현재 9.11 메모리얼 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⁴⁰⁾
 - 세계무역센터 메모리얼 재단(WTCMF)은 메모리얼 및 박물관의 건설을 위한 기금 모금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비영리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메모리얼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유류물 기증품 수령 등의 활동을 수행함⁴¹⁾
- 뉴욕 맨해튼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관광 루트에 포함
 -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된 후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경관은 변화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9.11 메모리얼은 주요한 맨해튼 투어 루트의 일부로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전망대에서 뉴욕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설명하는 역사적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9.11 메모리얼 추모시설



9.11 지하 박물관 '마지막 기둥'

[그림 4-8] 9.11 메모리얼 및 박물관 주요 전경

출처 : 9.11 memorial 홈페이지(<https://www.911memorial.org/visit>)(검색일: 2022.05.18.)

40) Erika Doss(2010), 「Memorial Mania」,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6.

41) 9.11 memorial 홈페이지(<https://www.911memorial.org/support>)(검색일: 2022.05.18.)

3)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예술조형물의 보도 배치를 통한 일상공간과 결합

□ 시설 개요⁴²⁾

-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이란 독일어로 ‘걸려 넘어지다’(stolpern)와 ‘돌’(stein)의 합성어로, 국내에는 ‘걸림돌 프로젝트’로 소개됨
- 추모석은 가로, 세로, 높이 각 10cm의 콘크리트 돌로 만들어졌으며 표면에 나치 희생자의 개인사를 적은 황동판을 부착하여 길바닥에 설치되는데, 주로 마지막 거주지 등 추모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위치에 설치됨
-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추모석에 발이 걸리거나 밟고 다닐 때마다 나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진행됨
- 현재 본 프로젝트는 여러 예술가, 지역 활동가 등의 참여를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가 점령하였던 유럽 24개국 2,000개 지역에 총 7만개의 추모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베를린에만 7,600개의 추모석이 설치됨

[표 4-10]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시설 개요

명칭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국가/위치	독일 / 베를린	입자연계 (사적지, 공원 등)	베를린 전역 길거리
유형	추모석(바닥동판)	건립/관리기관	(건립)예술가 귄터 뎀니히 (관리)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 베를린 조정사무소
건립년도	1992~현재	규모	가로 10cm×세로 10cm
건립목적	나치 집권기(1933~1945) 추방 및 살해 피해자 개인사 발굴 및 기억 활성화		
기념대상	나치 집권기 독일 내 유대인, 정치범,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		
연혁	1992.12.16 독일 쾰른에서 예술가 귄터 뎀니히 첫 추모석 제작 1993. 나치 박해자를 위한 추모석 설치 장기 예술 프로젝트 제안 1995.1. 현재 규모의 추모석 쾰른 시 보도에 설치 1996. 독일 베를린 보도에 추모석 50여개 설치 2018. 베를린 내 7,600여개 및 유럽 24개국에 약 7만개 추모석 설치		

출처 : Stolpersteine in Berlin 홈페이지(<https://www.stolpersteine-berlin.de/>)(검색일: 2022.03.23.)
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2) 이하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관련 내용은 백종옥, (2018),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서울: 반비, pp.98-117. 참고.

□ 주요 사항

- 지역 내 민간인 나치 희생자의 개인사 발굴
 - 해당 지역 내 민간인 나치 희생자의 이름, 태어난 해, 추방된 해 등 간략한 이야기를 조사하여 발굴함
 -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 발굴 작업은 각 지역 내 청년 학생들이 담당하며, 자료 분석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추모석을 제안하기도 함
- 예술가 및 지역 청년의 참여와 시민의 기부
 - 귄터 뎀니히의 추모석 작업이 확산되면서 여러 예술작가들이 수작업으로 제작에 참여함
 - 120유로를 기부하면 추모석 하나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독려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일상 공간인 도보와 추모 시설의 결합
 - 추모석은 지면과 같은 높이로 땅 속에 묻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보행 시 실제로 장애물이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추모석을 밟고 다니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성함
 - 길바닥 추모석은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추모석이 도시 곳곳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제작에 함께 참여한 각 지역 주민들은 추모석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꽃을 놓아두는 방식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음
 - 제작된 동판은 해당 인물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거주지 등 역명이 아닌 실제 인물과 관련된 장소에 추모석을 배치하여 장소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음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현황

[그림 4-9] 슈톨퍼슈타인 추모석 주요 모습

출처 : <https://www.deutschlandfunk.de/20-jahre-stolpersteine-holocaust-erinnerung-im-wandel-100.html> (검색일: 2022.05.19.)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1) 사례종합 분석

□ 종합 분석

- 앞에서 살펴본 사례별 주요 특성 및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11] 사례별 주요 특성

구분	시설명	주요 특성	주요 내용
국내·외 현충 시설 우수 사례	독립기념관	국내 기념관 지원 허브 역할 수행	-전국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등 교육협력망 사업 주관 -전국 기념관 교육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 및 배포 -전국 기념관 전시물 대여 및 지원
	서대문 독립공원	공원 내 현충시설 군집화로 테마화 및 일상공간 연계	-현충시설·문화재 군집화 및 전담 관리기관 지정·운영 -공원 정비 사업을 통한 현충시설-문화재-일상공간 간 연 계 및 접근성 개선
	순천시 현충정원	접근성 개선 및 시민참여형 예술기념물 조성	-현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정원으로의 장소 이전 및 해설 지원 -시민참여형 예술기념물 조성
	앤더슨빌 국립사적지	참여·체험형 기념행사 연례화, 전쟁유산 코스 연계	-시민참여 및 체험형 기념행사 연례화를 통한 보훈문화 형성 -조지아 주 내 전쟁유산 탐방코스 연계 운영을 통한 관광 활 성화 기여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공개 설계 공모로 새로운 기념조형물 선례 형성	-워싱턴 내셔널 몰의 대표적 기념물로서 냉전 시대 미국의 참전 의미 상징 -일반인 공개 설계 공모를 통한 새로운 기념조형물 선례 형성
국내·외 기념 및 추모 시설 우수 사례	망우역사 문화공원	역사적 장소 발굴 및 탐방코스 조성, 주민참여 운영·관리	-애국지사 묘역 발굴 후 탐방코스 조성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묘역 시 설 관리 수행
	9.11 메모리얼	테러 발생 장소에 조성된 공공의 추모공간 및 박물관	-테러 발생 장소에 조성, 역사적 사실의 생생한 보존·전달 수행 -시민의 자발적 기여와 관심을 통해 조성 및 관리 단체 조직 -뉴욕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관광 루트 포함
	슈틀퍼슈타 인 추모석	예술조형물의 보도 배치를 통한 일상 공간과 결합	-지역 내 민간인 나치 희생자의 개인사 발굴 -예술가 및 지역 청년의 참여와 시민의 기부로 조성 -일상 공간인 도보와 추모 시설의 결합을 통한 추모의 일상화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및 기념·추모시설에서 나타난 기능과 역할

• 기념·추모

- 현충시설은 문화재 및 기타 공공시설과 달리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 및 추모를 수행하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상징적 시설임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현충시설 및 기념·추모시설은 모두 방문객이 기념 및 추모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의 전달

- 우수 사례들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방문객에게 전달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시설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증언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조성되어 역사의 실제 현장이자 장소로서 역사를 증명하는 흔적으로서 기능함

• 교육·연구

-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발굴 및 전달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함
- 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력 확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조직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공유하여 유사 시설을 지원하도록 함
- 교육·연구 기능의 수행을 위한 시설별 전담조직 및 공공 지원조직 등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자원

- 주요한 문화 행사를 개최 및 수행하거나 특정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운영됨
- 유명 미술가 및 건축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홍보 및 보존 등 다양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음
- 지역 내 다양한 장소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역 정체성 형성
 - 지역 내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발굴하고 기념·추모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만들고 해당 지역 및 장소 정체성 형성에 기여함
 - 이러한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설의 조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
- 일상공간
 - 도시 내 위치한 현충시설 및 추모공간은 공원, 산책로 등 일상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일반인들이 방문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
 - 일부 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부족한 기존 현충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 공원 및 문화공간 등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과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공훈선양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생활 속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2) 시사점

□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 필요

- 현충시설은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등 현재 국가의 상징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역할, 이를 미래 세대에 계 교육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우수 사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형 프로그램 연계, 관광 코스 운영, 공간관리 및 접근성 개선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규모와 유형이 매우 다양한 현충시설의 여건상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주제별·규모별·유형별 현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전담 조직이 필요함
 - 독립기념관의 경우, 국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전시 등을 지원함
 - 앤더슨빌 사적지의 경우, 조지아주 내 전쟁유산 트레일 코스에 포함되는 기념관 및 박물관 10개소가 연합 조직을 구성하여 관광 코스를 운영함

-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과 9.11 메모리얼은 조성 과정에서 각각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기금(VVMF), 세계무역센터 메모리얼 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구성되어 공공과 연계하여 조성 및 운영·관리를 수행함

□ 공간의 예술적·질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필요

- 현충시설의 인식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현충시설 및 공간의 질적 가치 향상이 필요함
- 사례 분석 결과, 여러 사례에서 예술가, 건축가, 조경가 등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기념조형물 및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의 경우, 기존 수직적 기념비 형태와 다른 V자 벽 형태의 기념비를 조성하여 현대 기념조형물 사례의 주요 선례가 됨
 - 우수 시설의 지속적 조성과 확산을 통해 현충시설 및 공간의 질적 가치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조성 과정에서 전문가와 함께 국민을 참여시켜 공공시설 및 공간으로서 현충시설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인식 및 활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조성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지속적인 현충시설 이용 및 운영·관리 참여 필요
 - 순천시 현충정원은 예술가와 시민의 협동 작업을 통해 현충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의 질적 향상, 시설의 예술성 확보 및 시민참여 조성 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슈톨퍼슈타인 추모석의 경우, 귄터 뎀니히와 베를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예술 추모석 조성 작업이 다른 예술가와 유럽 전역 지역 주민들로 확대됨
 - 향후 현충시설의 기념·추모 행위는 강압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방향 수립을 통해 공적 기념·추모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일상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 필요

-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념·추모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여 널리 알리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과거 업적을 통해 드러나는 보훈의 가치관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임

리 선양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보훈 가치 선양을 위하여 현충시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는 문화재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간적으로 접근성 강화 및 일상 공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와의 접점 형성이 필요함
- 사례 분석 결과,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사례, 도시 공원 및 보도 등 일상공간과 현충시설을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현충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순천시 현충정원은 기존 현충탑이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 내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개선함
 - 서대문 독립공원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여러 현충시설을 신규 건립하거나 외부에 방치되어 있던 현충시설을 이전 건립하여 군집화함
 - 슈톨퍼슈타인 추모석은 길바닥 보도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추모석을 발견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함
- 일상 공간과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선양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현충시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는 시설을 넘어 공적 기념·추모 행위가 일어나는 기반으로서 보훈 문화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제5장 결론

1.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2. 연구 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1.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1) 현충시설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충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검토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본방향) 국가 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현충시설 위상 정립

- 국가차원에서 현충시설을 보훈선양정책의 기초 인프라로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 보훈선양정책 수립시 현충시설을 매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현충시설의 핵심가치를 역사적 사실의 전달, 추모/기념, 공훈선양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현충시설 지정(건립) 및 관리의 방향을 설정함

□ (기본방향) 현충시설을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으로 활용

- 역사전승, 기념·추모, 교육연구, 문화관광, 지역정체성, 일상공간문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충시설을 국가 보훈문화의 거점자원으로 활용
 - 현충시설의 다양한 기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의 중요한 추진방향인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이라 추진전략으로 활용함

2) 제도 개선방향

- 앞에서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해 제시한 기본방향, 1)국가 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현충시설 위상 정립, 2)현충시설을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으로 설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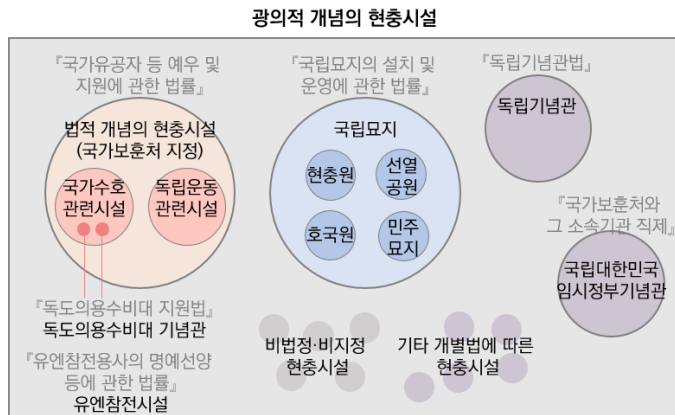
□ 현충시설의 명칭과 대상(범위) 개선

- 국가 보훈선양정책의 기반이자 핵심수단으로서 현충시설의 성격과 목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명칭과 범위 재설정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발의된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등에서 공훈선양시설, 현충시설, 보훈기념시설 등 유사한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어 해당 개념과 범주에서 혼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 과 개념, 그리고 범위 설정이 필요함
 - 특히 ‘현충⁴³⁾시설’이라는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공훈선양사업의 거점자원인 현충시설은, 국가보훈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 수단이므로 현재 정의된 법적 개념과 달리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그 본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법적 현충시설에서 제외된 시설들(국립묘지, 독립기념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⁴⁴⁾,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은 법적으로 현충 시설로 지정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현충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3)현충(顯忠)은 드러내서 알린다는 뜻을 가진 현(顯)과 충성의 뜻을 가진 충(忠)이 합쳐진 단어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널리 드러낸다는 뜻을 가짐. 김대현(2005), 「한국인의 생활한자, 하나되는 시간 속으로 - 순국(殉國)과 현충(顯忠)」, 서울: 태학사, p.113.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분으로는 안장 대상자에 따라 현충원, 민주묘지, 호국원, 선열공원이 있음. 국내에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 4·19민주묘지, 국립 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국립신암선열공원 등이 있음(「국립묘지법」 제 3조)

- 이 시설들이 별도의 근거법을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역할과 업무의 구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 설치된 시설, 즉 법적으로는 공훈선양시설임



[그림 5-1] 광의적 개념의 현충시설

출처 : 연구진 작성

- **(제도개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충시설의 대상과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충시설 관련 별도 법제정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현충시설에 대한 명칭 개선을 검토해야 함

□ 현충시설의 유형 재검토 및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정·관리 방안 마련

- 현재 구분되어 있는 현충시설 유형(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등)은 너무 다양하고, 탑, 동상, 조형물 등과 같은 유형들 간 구분이 모호하여 전체적인 유형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유형별에 따라 지정기준이나 관리방식에 차별이 없으므로 유형별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현충시설 지정은 계속 증가하나 상대적으로 시설 해제는 소수이므로 지속 가능한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해제 등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제도개선)** 현재 유형을 재검토 및 단순화(예를 들어 단위시설물, 공원/유적지, 건축물 등), 유형별 지정기준 구체화 및 해제기준 마련, 유형별 운영·관리방식 구체화 및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함

- 이외 단위시설물의 집산화 및 장소화 사업, 기념관 협의체 구축 및 지원 사업 등 현충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다각화해야 함

□ 현충시설 관련 주체 역할 정립 및 주체별 역량 강화

- 현충시설의 건립·소유·관리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문중 등 다양한데, 이러한 주체별 특성과 능력이 상이함
 - 특히 지자체는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과 역력이 부족하고 민간은 전반적으로 해당역량이 부족함
- 중앙차원에서 현충시설 관련 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주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제도개선)** 현충시설 지정 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강화(심사서류 개선), 시설 및 주체 특성을 고려한 관련 주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예를 들어 기념관협의체 구성 및 연계지원 등),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주체 참여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외 전문학예사와 같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현충시설 해설사 등 현충시설 관련 주체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등이 필요함

□ 현충시설 질적 개선을 위한 우수 현충시설 발굴 및 확산

- 현충시설의 핵심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 이를 지자체나 민간에게 보급·확산시켜야 함
- 이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우수한 현충시설을 건립, 선도 사례를 창출해야 함
- **(제도개선)** 좋은 현충시설 선정 및 지원 제도 도입, 현충시설 질적 관리를 위해 현충시설 평가체계 도입 등이 필요함

□ 전담조직 설치 등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현충시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연구요약 및 향후 추진과제

□ 연구개요

- 이 연구는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현충시설 현황과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역할과 가치 검토,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함
 - 연구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의한 현충시설, 즉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게 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그 중 국내 시설로 한정함
- 국내 현충시설은 2,259개소('21년 기준, 해외현충시설 1,386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시설과 국가수호 관련시설로 구분됨
 - 시설유형은 비석·탑·조형물·상징물·장소·기념관·사당·생가·부속 건물 및 관련시설 등 매우 다양함

□ 국내 현충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 보훈기념시설 등 관련법에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유사한 용어 간의 개념 및 범주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 현충시설의 건립·소유·관리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문중 등 다양하게 파악되며, 현충시설을 건립하고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관리주체가 바뀌는 등 개별시설마다 관여하고 있는 주체가 다양하여 실제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충시설의 유형은 법적으로 주제에 따른 구분과 형태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를 위한 검토 또는 건립지원 및 개·보수 지원 검토 시 현충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편, 현재 현충시설의 지정 검토는 현충시설로서의 의미와 위상 등 내용적 검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

건이나 시설의 활용 측면 및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질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 시설유형이나 규모, 시설 자체의 건축적·예술적 특성, 입지의 적절성, 시설의 접근성, 인근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건립주체 및 관리주체의 역량과 여건, 향후 관리계획 등이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900부) 대상으로 실시한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국민이 현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가 활성화 사업 등 추진 시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남
- 일반 국민의 현충시설 방문목적 조사 결과, 현충시설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상적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현충시설 인지도는 단순인지의 비율이 높으므로 현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노력이 필요함
 - 연령별 현충시설 방문 목적과 개선수요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홍보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 현충시설에 대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향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념과 추모의 상징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은 현충시설을 비교적 슬프고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향후 추진과제

- 주체별 국내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는 근거법에 따라 운영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학예연구사 등의 전

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지자체나 민간단체는 실질적인 현충시설 관리나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현충시설의 가치 전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현충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함
 - 소유·관리주체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 역량 및 여건이 상이하며, 이를 보완하고 현충시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매뉴얼의 개발, 관리 역량 강화 등 국가보훈처 역할이 중요함
 - 한편,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설치·운영되어야함
-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현충시설 유형에 따라 다각화하고, 시설 유형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바람직한 현충시설의 운영·관리 방향을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제시해 주어야 함
-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현충시설을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양호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충시설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현충시설 및 기념·추모 시설 중 다양한 사회적·교육적·역사적·지역적·예술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현충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 및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함
- 주요 우수사례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형 프로그램 연계, 관광 코스 운영, 공간관리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현충시설 관리주체가 별도의 전문 인력 또는 전담 조직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주제별·규모별·유형별 현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함
- 사례 분석 결과, 여러 사례에서 예술가, 건축가, 조경가 등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기념조형물 및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념·추모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일상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충시설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는 문화재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접근성 강화 및 일상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러운 보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함

□ 현충시설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 현충시설은 국가의 주요한 상징정책인 보훈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형성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1)국가 보훈선양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현충시설의 위상 정립, 2)보훈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거점자원으로 현충시설 활용으로 설정함
-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현충시설의 명칭과 대상 개선, 시설 특성을 고려한 현충시설 유형 재검토 및 지정·관리 방안 마련, 현충시설의 관련 주체 역할 정립 및 주체별 역량 강화, 현충시설 관련 전담조직 신설, 우수 현충시설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안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충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현충시설 현황 검토,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역할, 실제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유형별 개별시설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 지원 사업 등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alio.go.kr/>
-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홈페이지. <https://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anniversary.do?anniversaryId=9840000000>
- 국가보훈기본법, 법률 제14459호.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mfis.mpva.go.kr/>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내부자료.
- 국가보훈처. (2011). 보훈 50년사.
- 국가보훈처. (2018).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
- 국가보훈처. (2020.06).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 국가보훈처. (2021). 2022 보훈업무 시행지침 II. 2021.12.2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s://opinion.lawmaking.go.kr>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6호.
- 김대현. (2005). 한국인의 생활한자, 하나되는 시간 속으로 - 순국(殉國)과 현충(顯忠). 서울: 태학사.
- 김정현 외. (2016).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창규 외. (2019). 현충시설 지정범위 및 효과적 관리모델 개발 정책연구. 국가보훈처.
- 독립기념관 교육부. (2022). 2021 독립기념관 교육사업 운영보고서.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https://i815.or.kr/>
- 독립기념관. (2019). 독립기념관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 독립기념관. (2021). 전국 현충시설(기념관) 업무편람.
- 독립기념관법. 법률 제18717호.
- 류현숙 외. (2014). 현충시설 용어개선 및 범위 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외. (2016).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 및 입법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8(2), pp.141-166.

망우역사공원 홈페이지. <https://www.jungnang.go.kr/manguriPark/>

박중훈 외. (2012).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백범김구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kimkoomuseum.org/>

백중옥. (2018).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서울: 반비.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기금(VVMF) 홈페이지. <https://www.vvmf.org/>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홈페이지. <https://sphh.sscmc.or.kr/>

서운석 외. (2009).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 (2008.05). 학교 추념식 학교장 훈시 활용 자료.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https://parks.seoul.go.kr/parks/detailView.do?pIdx=30>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 <https://scbay.suncheon.go.kr/garden>

윤태영 외. (2015).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이연수 외. (2021). 2021년 독립기념관 교육 평가지표 기초개발. 독립기념관.

이영자 외. (2010).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이효재 외. (2014). 현충시설의 관광자원화 전략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재단법인 아름지기. (2007). 서대문형무소 활용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https://www.warmemo.or.kr/>

전쟁기념관. (2021).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내부자료. 2021.12.31.

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제4076호.

춘천시. (2020). 춘천시 2020년 세입·세출 현황 자료.

현충시설 관리지침. 국가보훈처훈령 제1353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99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형시영 외. (2010).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형시영 외. (2011).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형시영 외. (2014).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9.11 memorial 홈페이지. <https://www.911memorial.org/>

Doss, Erika. (2010). Memorial Mania.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orgia World War II Heritage Trail 홈페이지. <https://www.georgiawwiitrail.org>

National Park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nationalparks.org/>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 <https://home.nps.gov/ande/index.htm>

Stolpersteine in Berlin 홈페이지. <https://www.stolpersteine-berlin.de/>

Young, James E. (2016). The Stages of Memor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 Study of Improvements to Enhance the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SUMMARY

Lee, Sangmin
Son, Eunshin
Song, Yunjeong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ystematically manage memorial facilities that are rising in number and to enhanc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in terms of veterans affairs policy.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esign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emorial facilities in Korea was diagnosed, and the direction of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s was proposed to boost their value.

This study targeted memorial facilities defined by Article 74-2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 that is,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recognition of their value in honoring person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or their merits and sacrificial spirit and in cultivating patriotism among the general public – and the scope was confined to the facilities located in Korea. This paper mainly consists of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memorial facilities and their role and value in veterans affairs policy, analysi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omestic memorial facilities in Korea,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and proposal of a direction of improvement.

There are currently 2,259 domestic memorial facilities (1,386 overseas memorial

facilities, as of 2021), and the number is steadily rising. Memorial facilities, which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managed nationwid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Memorial Facilities, etc., are largely divided into facilitie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facilities related to national protection. Memorial facilities are diverse in type and include memorial stones, towers, sculptures, symbols, places, memorial halls, shrines, residences, annex buildings, and related facilities.

A public perception survey on memorial facilities conducted with the general public (900 copies) aged 19 or older across the countr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Korean citizen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emorial facilities and expressed a strong will to participate in government-initiated memorial facility promotion projects. However, public awareness of memorial facilities was of a simple type, and it was deemed that promotional activities and marketing would be necessary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Moreover, it was found that many Koreans viewed memorial facilities as facilities that retain historical facts and records rather than symbolic spaces for commemoration and remembrance that can cultivate patriotism. The images associated with memorial facilities were both relatively melancholy and somber as well as approachable and comfortable, and it was deemed necessary to diversify user programs at memorial facilities and enhance accessibility.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omestic memori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operator. The central government is subsidized some of the operating expenses from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It is staffed with professional manpower, such as curators and researchers, to plan and operate a wide range of programs to deliver the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to the general public.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fac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programs other than simply cleaning and monitoring the surrounding areas because there are few public servants from

welfare-related departments in charge of managing the memorial facilities along with the duties related to veterans affairs. Private organizations, also facing limitation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typically make a gratuitous transfer of the facilities they owned to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operate them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paid as management service fees.

Chapter 4 presents a review of the best practices of domestic and overseas memorial facilities and commemorative and remembrance facilities,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unique to domestic memorial facilities an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utilization. First, the best-practice memorial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played a role in preserving and transmitting historical facts. The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local identity and helped instill pride in local residents at the regional level. Second, they contributed to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through commemoration and remembrance and helped establish national identity. Memoria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distinguishable from cultural assets that simply preserve and maintain historical facts in that they are facilities for remembering and hono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Lastl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d spread the culture of respecting and honoring veterans by promoting the related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memorial facilities but also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promote the use of the facilities.

As examined in this study, a memorial facility is an invaluable medium for realizing the veterans affairs policy, which is one of the major symbolic policies of the State, and a means to form a veterans culture to respect and remember those who have sacrificed for the country and her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et th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value of memorial facilities as follows: 1) to establish the status of memorial facilities as a basis for

realizing the national veterans affairs policy and 2) to utilize memorial facilities as bases for forming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respecting and honoring veterans.

Specific improvement directions proposed include improving the names of memorial facilities and the facilities themselves, reexamining the types of memorial facilities in consideration of facility characteristics, and preparing a designation and management plan, establishing the roles of relevant entities in the constructi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emorial facilities and promoting capacity building of each entit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memorial facilities, and discovering and promoting excellent memorial facilities among others.

Keywords :

Memorial facility, veterans affairs policy, honoring veterans, culture of respecting and honoring veterans, memorial, remembrance, commemoration

부록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Appendix 1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현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분야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의 일환으로, 현충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2022년 4월

건축공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송윤정 연구원 (044-417-9852),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044-417-964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기림로 143, 8층 건축공간연구원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도 선택]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 ⑰ 세종 | | | |

SQ2.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현충시설의 법적 개념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현충시설(顯忠施設)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독립운동 관련 시설	국가수호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 독립운동을 한 장소 -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 국내 현충시설 사례

전국에는 탑·비석, 조형물, 공원·장소, 기념관, 사당, 동상, 생가 등의 형태를 띤 현충시설이 총 2,259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대표적인 현충시설로는 아래와 같은 시설이 있다.

서울			
전쟁기념관	3·1독립운동 기념탑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부산 유엔기념공원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광주 광주백범기념관
			
대전 윤봉길 의사 상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	경기 만해 기념관	강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충북 괴산군보훈공원	충남 유관순열사 기념관	전북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남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경북 이육사 문학관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제주 월남 참전 기념탑	세종 충령탑
			
출처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내 각 현충시설 정보 참고 (http://mfis.mpva.go.kr/memorial/movementList.do)(검색일 : 2022.05.20.)			

A.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

A1. 귀하는 평소 ‘현충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A3.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B. 현충시설에 대한 이미지 및 주요 가치

B1. 귀하는 평소 ‘현충시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각의 단어별로 어느 쪽의 느낌에 더 가까운지 그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왼쪽 이미지에 가깝다	<---<	반반이다 (중립)	--->>	오른쪽 이미지에 가깝다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기쁘다
권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롭다
낯설다	①	②	③	④	⑤	친근하다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재미있다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력적이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밝다
고리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현대적이다
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세련되다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편안하다
단조롭다	①	②	③	④	⑤	다채롭다

B2. 귀하는 다음 현충시설 관련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애국심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조형물과 상징물이 인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시간이 된다면 자주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는 다음 현충시설의 기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국민들에게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B4.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 귀하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이어야 한다
- ② 국민들에게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이어야 한다
- ③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어야 한다
- ④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 ⑤ 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C. 현충시설 방문경험

C1. 귀하께서는 최근 5년 동안 현충시설을 몇 차례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 5년간 총 ____회 방문

(C1. 1회 이상자만)

C1-1. 귀하께서 현충시설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목적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국민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및 참배를 위해
- ②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추모를 위해
- ③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 ④ 본인 및 자녀/손자녀의 학습을 위해
- ⑤ 일반적인 여행관람을 위해
- ⑥ 일상적 휴식을 위해
- ⑦ 기타(_____)

C1-2. 귀하께서 현충시설을 방문하셨을 때, 현충시설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설의 건립목적에 대한 정보와 시설의 역사·사회적 가치에 대해 잘 전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체험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휴식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는 국민들이 현충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개선이 필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보기 로테이션)

▶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②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
- ③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전달 체계 개선
- ④ 현충시설에 대한 홍보 확대
- ⑤ 쾌적한 현충시설을 위한 시설 개선
- ⑥ 시설의 장소성 강화 및 디자인 향상
- ⑦ 기타(_____)

C3. 현재 국가에서는 현충시설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사업(탐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반반이다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꼭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가 계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DQ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현충시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DQ3.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 | |
|-------------|--------------|----------|
| ① 자영업 | ② 판매/영업 서비스직 | ③ 기능/작업직 |
| ④ 사무/기술직 | ⑤ 경영/관리직 | ⑥ 자유/전문직 |
| ⑦ 농/임/어/축산업 | ⑧ 전업주부 | ⑨ 대학(원)생 |
| ⑩ 은퇴/무직 | ⑪ 기타(_____) | |

DQ4. 귀하의 최종 졸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전문)대학 재학 | ③ (전문)대학 졸업 |
| ④ 대학원 재학 | ⑤ 대학원 졸업 | |

DQ5. 실례지만, 귀하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너스,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 포함)

-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부록2. 국민인식조사 결과

Appendix 2

1. 응답자 특성

[표 부록2-1] 응답자 특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900)	100.0
성별	남성	(456)	50.7
	여성	(444)	49.3
연령	20대	(153)	17.0
	30대	(163)	18.1
	40대	(196)	21.8
	50대	(205)	22.8
	60대 이상	(183)	20.3
거주지역	서울	(161)	17.9
	부산/울산/경남	(139)	15.4
	대구/경북	(79)	8.8
	인천/경기	(275)	30.6
	광주/전라	(96)	10.7
	대전/충청/세종	(104)	11.6
	강원/제주	(46)	5.1
국가유공자 유무	있음	(206)	22.9
	없음	(694)	77.1
지역 현충시설 인지여부	인지	(381)	42.3
	비인지	(329)	36.6
	모름	(190)	21.1
현충시설 관심도	관심 없음	(212)	23.6
	보통	(417)	46.3
	관심 있음	(271)	30.1
현충시설 인지도	알고 있음	(376)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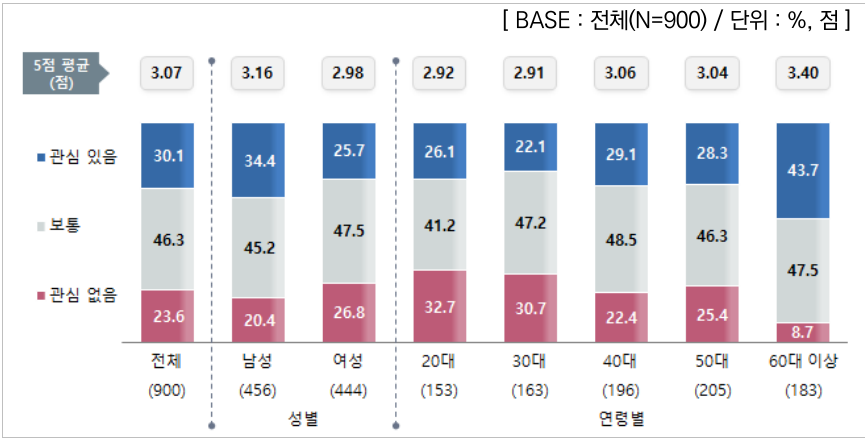
직업	들어본 적 있음	(478)	53.1
	모름	(46)	5.1
	자영업	(65)	7.2
	판매/영업 서비스직	(68)	7.6
	기능/작업직	(53)	5.9
	사무/기술직	(279)	31.0
	경영/관리직	(40)	4.4
	농/임/어/축산업	(79)	8.8
	전업주부	(6)	0.7
	대학(원)생	(146)	16.2
	은퇴/무직	(63)	7.0
	기타	(73)	8.1
학력	고졸 이하	(28)	3.1
	대재/대졸	(189)	21.0
	대학원 이상	(581)	64.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0)	14.4
	200~400만원 미만	(95)	10.6
	400~600만원 미만	(326)	36.2
	600~800만원 미만	(259)	28.8
	800만원 이상	(123)	13.7

출처 : 연구진 작성

2. 조사 결과

1) 평소 현충시설 관심도

- 평소 현충시설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30.1%(매우 관심이 많다 3.7% + 관심 있는 편이다 26.4%)로 ‘관심 없다’ 23.6%(전혀 관심이 없다 2.9% + 별로 관심이 없다 20.7%) 대비 높게 나타남
- 남성(34.4%)이 여성(25.7%) 대비 현충시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특히 60대 이상(43.7%)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7.4%)에서 타지역 대비 현충시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인 경우(44.2%), 현충시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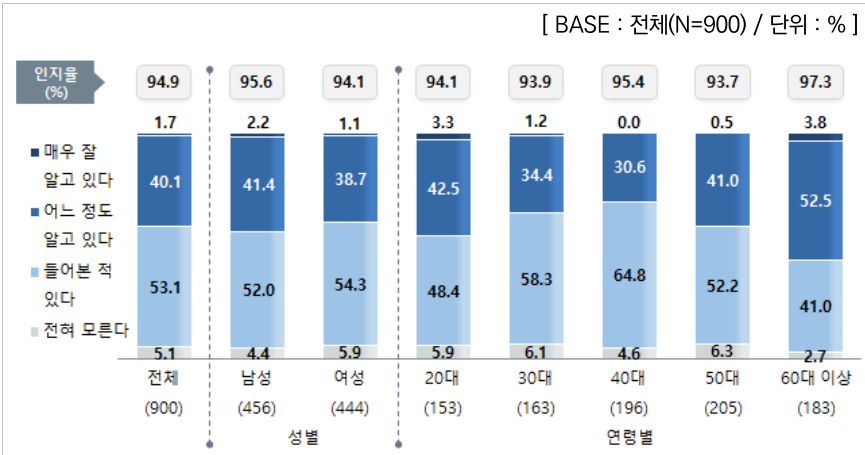


[그림 부록2-1] 평소 현충시설 관심도

출처 : 연구진 작성

2) 현충시설 인지도

- ‘현충시설’ 인지도는 94.9%로 높게 나타났으나, ‘들어본 적 있다’는 단순 인지가 2명 중 1명 이상(53.1%)으로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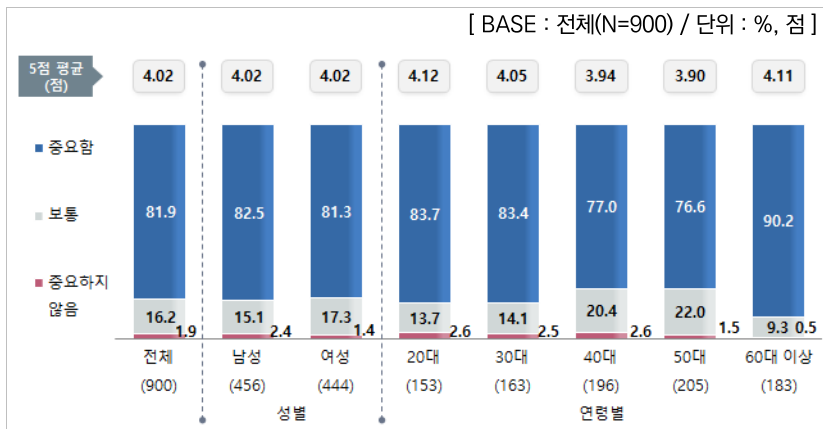
[그림 부록2-2] 현충시설 인지도

출처 : 연구진 작성

3) 현충시설 중요성

-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1.9%(매우 중요하다 22.0% + 중요하다 59.9%)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함



[그림 부록2-3] 현충시설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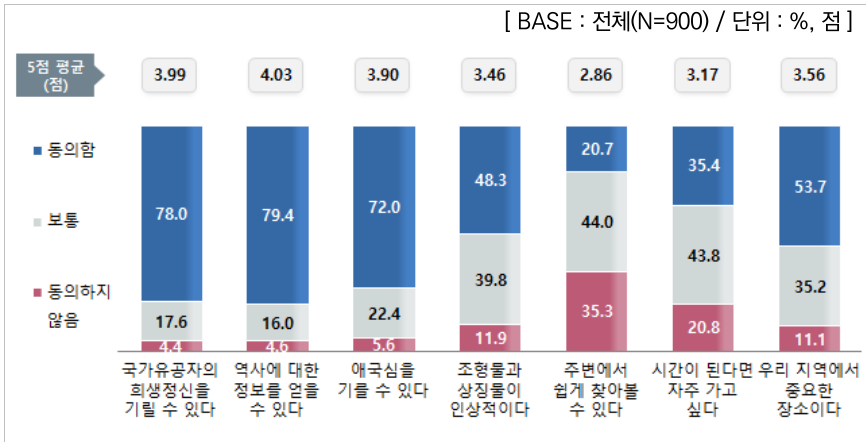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80%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90.2%)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본인 및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89.3%), 평소 현충시설에 관심이 높을수록,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중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4) 현충시설에 대한 인식

- 현충시설에 대해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다’(78.0%), ‘애국심을 기를 수 있다’(72.0%)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7%로 타 항목 대비 낮아, 현충시설의 의미나 중요성에 비해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대체로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남성 대비 ‘동의’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다’에 대해서는 남성(78.1%)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음
- 평소 현충시설에 관심이 많을수록,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현충시설의 역할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시간이 된다면 자주 가고 싶다’,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장소이다'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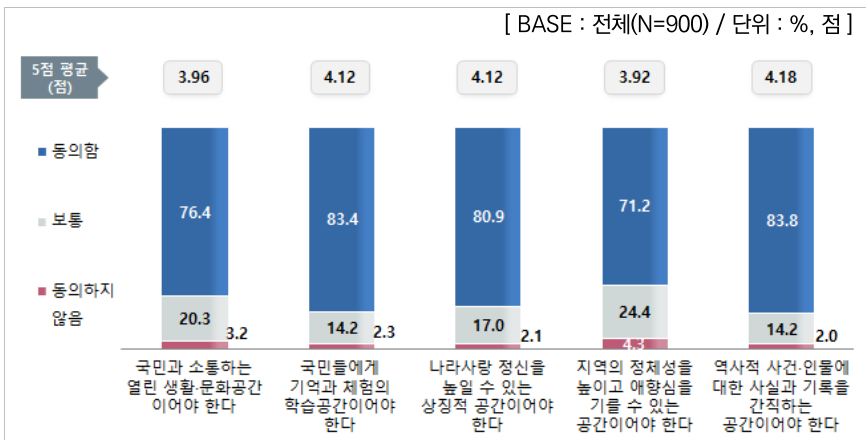


[그림 부록2-4] 현충시설에 대한 인식

출처 : 연구진 작성

5) 현충시설 기능에 대한 인식

-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 높은 동의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83.8%),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83.4%), '상징적 공간'(80.9%)은 동의율 80% 이상으로 공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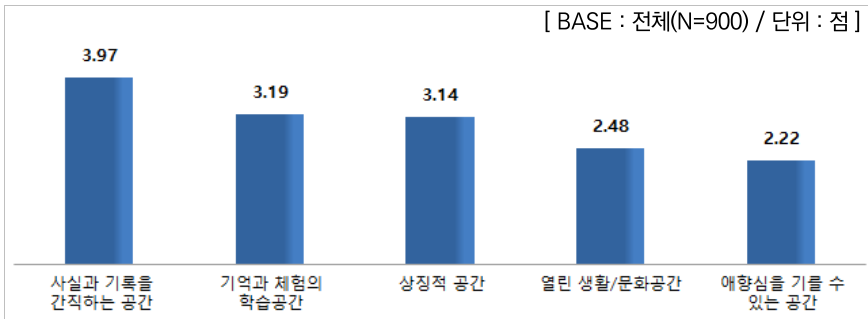
[그림 부록2-5] 현충시설 기능에 대한 인식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게 나타남
- 본인 및 가족 중 국가유공자가 있을수록, 거주지역에 현충시설이 있을수록, 평소 현충시설에 관심이 많고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현충시설 기능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6) 가장 중요한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

-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중요도 평가 결과,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이 3.97점으로 현충시설의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이어서 ‘기억과 체험의 학습공간’(3.19점), ‘상징적 공간’(3.14점) 순이었으며,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공간’(2.22점)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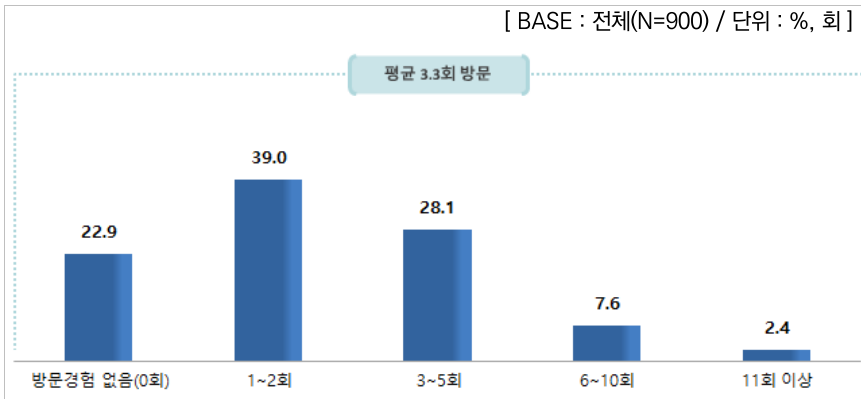
[그림 부록2-6] 가장 중요한 현충시설의 기능과 역할(중요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가장 중요한 현충시설의 기능 및 역할로 ‘사실과 기록을 간직하는 공간’ 응답은 여성(4.07점)이 남성(3.8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및 60대 이상(각각 4.05점), 광주/전라(4.16점)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 및 가족 중 국가유공자가 있을수록, 평소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현충시설이 ‘상징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7) 현충시설 방문 횟수

- 최근 5년간 현충시설 방문 횟수는 평균 3.3회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1~2회'가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회'(28.1%), '6~10회'(7.6%), '11회 이상'(2.4%) 순임
- 한편 5년간 방문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2.9%로 나타남



[그림 부록2-7] 현충시설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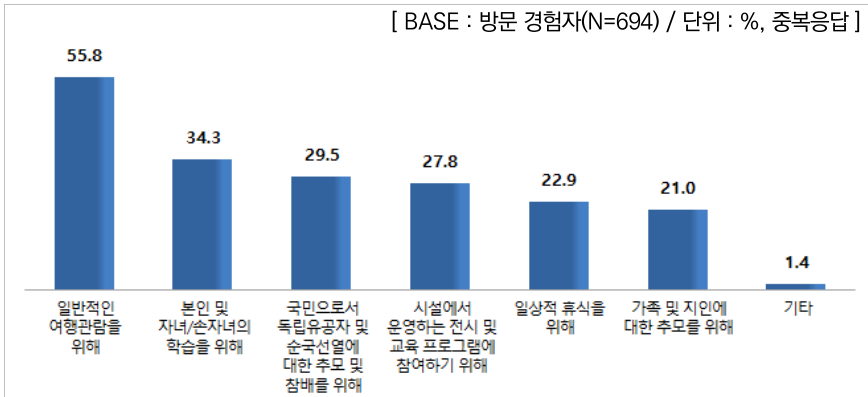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현충시설 방문 횟수는 20대(4.7회)가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유공자(4.2회), 지역 현충시설 있음(4.7회), 현충시설 관심도가 높을수록,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8) 현충시설 방문 목적

- 현충시설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 절반 이상(55.8%)이 '일반적인 여행관람을 위해' 현충시설을 방문했으며, 이어서 '본인 및 자녀/손자녀의 학습을 위해'(34.3%), '국민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및 참배를 위해'(29.5%) 순으로 나타남
- 현충시설 방문 목적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연령이 낮을수록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응답이 높은 반면, 학부모가 많은 40대에서는 '본인 및 자녀/손자녀의 학습을 위해'(55.9%),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추모를 위해'(29.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추모를 위해’(48.6%) 방문한 경우가 비 유공자(11.8%)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비유공자는 주로 ‘일반적인 여행관람을 위해’(61.3%) 현충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한편 거주지역에 현충시설이 있는 경우 ‘일상적 휴식을 위해’(28.5%)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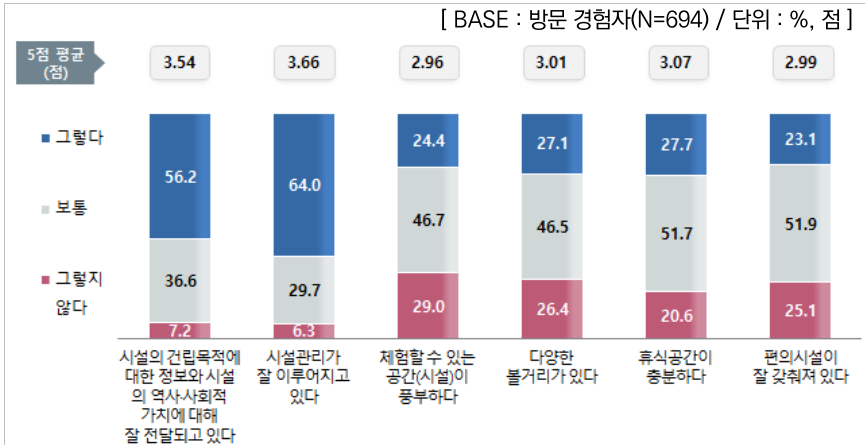


[그림 부록2-8] 현충시설 방문 목적

출처 : 연구진 작성

9) 현충시설에 대한 인상

- 현충시설 방문 경험자들은 대체로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64.0%), ‘시설의 건립목적에 대한 정보와 시설의 역사·사회적 가치에 대해 잘 전달되고 있다’(56.2%)고 느낌
- 한편 ‘휴식공간’(27.7%), ‘다양한 볼거리’(27.1%), ‘체험공간 및 시설’(24.4%), ‘편의시설’(23.1%)과 같은 부대시설 및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충시설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유공자일수록, 평소 현충시설에 관심 수준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의 건립목적에 대한 정보와 시설의 역사·사회적 가치에 대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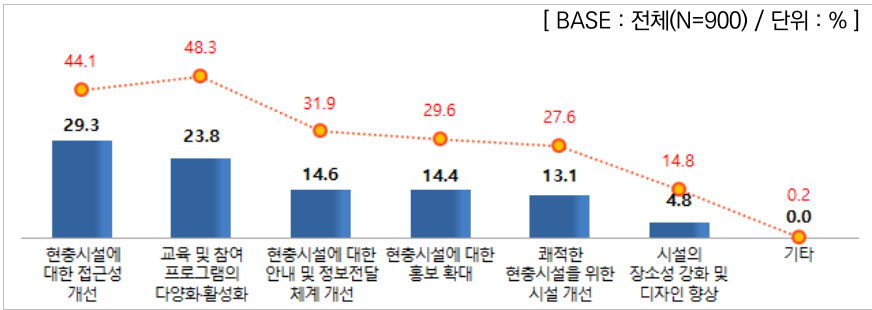


[그림 부록2-9] 현충시설에 대한 인상

출처 : 연구진 작성

10) 현충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현충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3%(1+2순위 기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44.1%),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전달 체계 개선’(31.9%) 순으로 개선 요구가 나타남
- 현충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남성은 ‘쾌적한 현충시설을 위한 시설 개선’(32.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활성화’(53.4%)를 주문함
-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홍보 확대’(39.9%)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50~60대 중장년층에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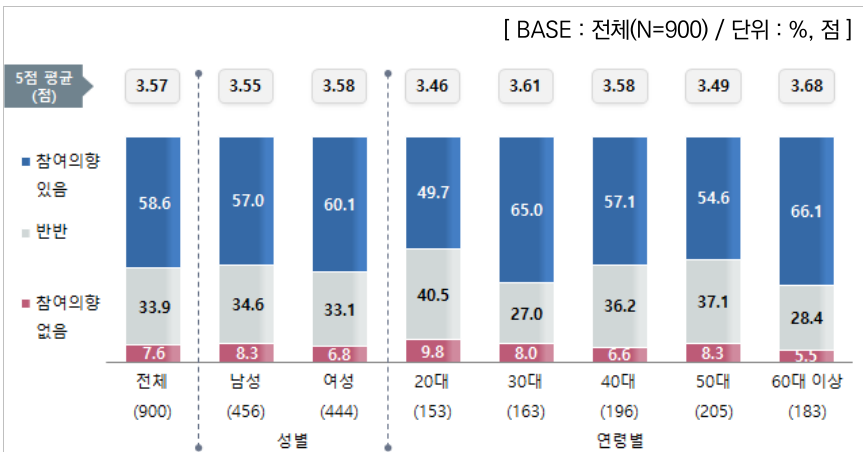


[그림 부록2-10] 현충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출처 : 연구진 작성

11)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참여 의향

- 현충시설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활성화 사업(탐방, 교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8.6%(꼭 참여하고 싶다 6.6% +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52.0%)로 ‘참여의향 없음’ 7.6% 대비 높게 나타남
-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에 대해 남성(57.0%) 보다 여성(60.1%)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6.1%) 및 30대(65.0%)에서 높게 나타남
- 본인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일수록, 지역에 현충시설이 있을수록, 평소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참여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부록2-11]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참여 의향

출처 : 연구진 작성